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학위논문

내몽골에서의 소수민족 통합과 재현의 정치

-역사박물관과 칭기즈칸릉을 중심으로-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고페이

내몽골에서의 소수민족 통합과 재현의 정치

-역사박물관과 칭기즈칸릉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근식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고 페 이

고페이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2016년까지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내몽골자치구에 총 211개의 박물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중국의 5개 소수민족 자치구 중에 내몽골이 가장 많은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역사 박물관은 내몽골 전체 박물관 중 7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방문인수의 증가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약 90%이상의 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되었으며, 박물관 사업은 내몽골자치구 ‘10대 민생 공정’ 중의 일환에 포함된다.

한편, 칭기즈칸릉은 내몽골에서 가장 대표성을 지닌 공간적 장소이고 일종의 특수한 역사박물관이다. 1954년부터 현재까지 장장 60여 년 동안 정부에서는 총 10차례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칭기즈칸릉을 수축하였고 그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오늘날 내몽골 사회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실정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칭기즈칸릉과 내몽골 역사박물관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 내몽골자치구에 설립된 역사박물관의 분포와 시기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정부가 내몽골지역에 대한 민족체제와 정치적인 지향을 밝히고, 거기에 칭기즈칸릉 박물관의 현지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족 거주자들의 심리적 반응 및 그 변화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실제통합효과를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민족정책의 방향을 조망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박물관과 칭기즈칸릉을 이용하는 데서 드러나는 실제 통합효과를 보면, 하나는 시민들이 역사박물관에서 재구성한 역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그대로 접수하지 않았고 심지어 불만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하나는 칭기즈칸릉이 내몽골 지역의 민족들을 통합하는 하드매체로서 국가에서 그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해왔는데, 이

는 한편으로 내몽골지역에 쾌속적인 발전을 안겨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개발 또는 지나친 융합을 강요하는 행위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박물관과 칭기즈칸릉을 이용해 민족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지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품고 있다. 둘째, 내몽골 역사박물관의 발전과정을 돌이켜보면 내몽골의 박물관 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시점은 90년대 말 이후부터다. 특히 2000~2010년 사이에 내몽골의 박물관 수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박물관 사업을 발전하기 위해 국가정부, 내몽골 정부 그리고 내몽골의 각 지방정부가 일제히 동원되어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구축하였다. 90년대 말 이후의 박물관 정책변화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정권시기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다. 각 단계의 정책성향을 간략히 특징지으면 장쩌민 집권시기(1993년-2003년)는 박물관 사업의 시장화에 집중한 시기였고, 후진타오 집권시기(2003년-2013년)는 소프트파워에 강조점을 둔 시기였고, 시진핑 집권시기(2013년-현재)는 박물관 사업의 활성화에 힘을 실은 시기였다.

주요어: 내몽골자치구, 역사박물관, 칭기즈칸릉, 소수민족 통합, 통합 효과, 박물관 사업, 중국 정부

학번: 2014-25122

<목 차>

제1장 서론	1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1.3 연구방법	17
1.4 논문의 구성	18
제2장 내몽골 역사박물관의 형성과정	20
2.1 내몽골, (외)몽골의 분단역사 및 내몽골의 성립	20
2.2 박물관의 건설과 정치적 재현	22
2.3 내몽골 박물관의 형성과정과 특징	30
2.4 왕소군박물관으로 본 정치적 재현	44
2.5 내몽골 역사박물관의 실제 통합효과 및 검토	52
제3장 칭기즈칸릉으로 본 민족 통합	55
3.1 칭기즈칸릉의 역사적 유래	55
3.2 칭기스칸릉 “세 차례의 대천이”에 대해 역사적인 고찰 ...	57
3.3 칭기즈칸릉과 제사의 현재 상황에 대한 고찰	60
제4장 결론과 시사점	72
참고문헌	75
부록. 부록번역	79
영문초록	85

<표 목차>

<표 1> 2012년 중국 5개 소수민족 자치구의 박물관수	5
<표 2> 1950s-2015년 내몽골 박물관수와 참관인수의 변화	23
<표 3> 2000-2015년 내몽골 새로 건립한 박물관수와 총 박물관수	24
<표 4> 심층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62

<그림 목차>

<그림 1> 내몽골 지역별의 박물관 분포	41
<그림 2> 왕소군의 선녀 조각상	51
<그림 3> 왕소군 밀랍인물상	51
<그림 4> 왕소군 동상	51
<그림 5> 원나라에서 청나라까지의 칭기즈칸릉 천이	57

제1장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속한 내몽골자치구(內蒙古自治區 Inner Mongolia)에 설립된 역사박물관의 분포와 시기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정부가 내몽골에 대한 민족체제와 정치적인 지향을 밝힘과 동시에, 칭기즈칸릉 박물관 현지 참여경험을 통하여 몽골족 거주자들의 심리적 반응과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몽골족을 통합하는 실제효과를 검토하고 향후 민족정책의 방향을 조망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중국은 전형적인 다민족국가 중의 하나다. 주도적인 민족인 한족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55개 민족은 모두 소수민족이라고 통칭하였다. 2000년 중국의 전국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55개 소수민족 중 인구가 백만을 초과한 소수민족은 18개가 있다. 구체적으로 몽골족, 회족¹⁾, 장족(즉 티베트족), 묘족²⁾, 위구르족³⁾, 조선족, 태족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남방 지역의 소수민족을 비하면, 북방과 서부 지역의 소수민족(즉: 몽골족, 조선족, 티베트족, 위구르족,)을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그들의 특수성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지리적 특수성, 역사의 특수성, 그리고 평화통일의 시급성과 현실적 요구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몽골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그리고 조선족은 중국 변경지대의 주요한 소수민족이고, 각각 내몽골, 티베트,

-
- 1) 주로 중국의 서북 지역, 특히 닝샤회족자치구에 가장 많이 분포함, 언어는 한족과 같지만 종교는 이슬람교를 믿음.
 - 2) 주로 중국의 남방 지역, 예를들어 구이저우성, 윈남성, 공시성 등 지역에 분포함.
 - 3) 주로 신장 자치구에 분포함.
 - 4) 윈난성 시황만나에 집거하고 있다.

신장 그리고 연변조선족 자치구에 집거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중국의 14개 육상 이웃 나라들 중의 11개와 서로 인접하고 있기에, 중국 변경의 안전과 평화를 결정하는 주로 지대라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각의 역사를 보면 모두 독립적인 나라 혹은 다른 나라의 일부로써, 중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자체 특유의 역사문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은 유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현실적 요구를 보면 중국 이웃 나라와의 다양한 충돌, 갈등 등 불안정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수비 작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내몽골, 신장, 티베트 그리고 길린 연변의 소수민족을 통합할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티베트족, 위구르족과 달리, 몽골족 또한 조선족은 외부의 다른 민족국가의 동포로서 한민족이 분단된 소수민족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민족이었던 몽골 민족은 내몽골과 (외)몽골로 분단됨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체계에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은 남북한의 해외동포로서 중국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단 외부 민족국가의 존재가 중국에 있는 동포민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불안정한 요인을 초래시킬 수 있기에, 몽골족과 조선족을 통합할 시급성이 강화되었다.

<2016년 국가통계연감>에 따라 2016년까지 내몽골자치구 전체에 211개의 박물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의 5개 소수민족 자치구 중에 내몽골이 가장 많은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역사적 박물관은 내몽골 전체 박물관의 70%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내몽골에는 등록된 박물관 수가 1950년대 3개에서 2000년 40여개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서 내몽골 내 박물관 수는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 1000만에 달하는 내몽골 인구가 방문할 정도로 내몽골은 성급(省), 구급(區), 현급(縣) 등 여러 등급

의 박물관이 조성된 ‘애국교육기지’가 된다. 2010년까지 2,500만에 달하는 내몽골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박물관은 내몽골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015년까지는 내몽골 박물관 수는 200여 개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방문인구가 무려 3500만에 달했다. 2015년 12월까지 내몽골 약 90%이상의 박물관이 모두 무료로 개방되었으며, 박물관 사업은 내몽골자치구 ‘10대 민생공정’ 중의 하나로 들어간다. 오늘까지도 정부가 내몽골의 박물관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여기까지 내몽골 박물관의 건립이 민족지역의 안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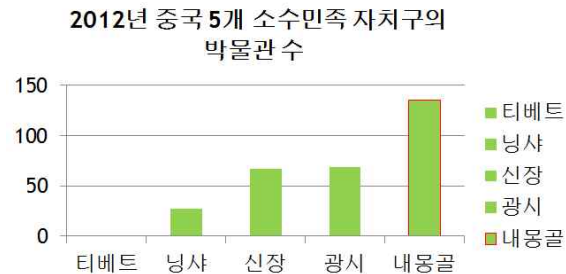
칭기즈칸릉(Чингис хааны онгон, 영어 : Mausoleum of Genghis Khan)은 내몽골에 가장 대표성을 지닌 공간적 장소이다.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결과, 1954년에서 현재까지 60년 넘은 동안 정부가 총 열 번이나 거액 자금으로 칭기즈칸릉을 수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칭기즈칸릉을 일종의 특수한 역사박물관이라 주장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한편 내부적인 구조에서 보면, 칭기즈칸릉은 몽골족들이 칭기즈칸을 제사하는 곳이지만, 사실상 칭기즈칸이 밀장(비밀로 매장한다)을 했기 때문에 칭기즈칸릉은 칭기즈칸이 실제로 매장된 곳은 아니다. 단지 일반적인 박물관과 같은 기억을 재구성하는 공간적 장소이다. 뿐만 아니라 칭기즈칸릉 안에 칭기즈칸과 관련 내용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실제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칭기즈칸릉은 제사 기능을 지닌 특수한 대형 역사박물관이라 여길 수 있다. 다른 한편, 21세기 이래 정부가 칭기즈칸릉과 역사박물관을 같은 시스템으로 여겨 자금으로 지원하고 발전 계획을 세웠다. 공식 문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같은 시기나 단계에 칭기즈칸릉에게 제정한 발전방안과 박물관을 겨냥하여 제시한 것은 동시적이고 서로 상응된다. 따라서 칭기즈칸릉과 내몽골 역사박물관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민족 국가에게 소수민족지역에서 민족간의 역사적 연원을 집약적

으로 표현되고, 또 그것을 재생산하는 공간적 장소가 역사박물관이다. 역사박물관은 다민족 간 연원과 기억의 재현 매체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서사를 재현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거대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소수민족 지역에서 대부분의 역사박물관은 국가의 의지와 기획을 수반하는 국가프로젝트로 만들어지며, 일단 한번 건설되면, 쉽게 변화하지 않는 ‘하드’하면서 ‘느린’매체일 뿐 아니라 전시를 통하여 국민들의 민족기억, 특히 소속민족 국민들의 기억을 규질화하고 올바른과 틀림을 판단하는 기준적 장치이다.⁵⁾ 이러한 인식을 가지며 내몽골의 모든 박물관에 대하여 고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내몽골 박물관의 건립 상황을 시기별, 지역별로 정리하여 내몽골 역사박물관은 시기에 따라 어떤 특징을 갖는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는지, 선양주장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시에 내몽골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칭기즈칸릉(박물관)을 다룸으로써, 역사상의 세 차례의 대천이(三次大遷移)와 오늘날의 제사현황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내몽골에서 역사박물관을 건설한 정치적 목적을 도출하고,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칭기즈칸릉 제사의 현재 상황(예: 최근 칭기즈칸 제사날에 발생한 소소한 분쟁과 몽골사람들의 불만, 또는 청년들의 제사의식 참여율 감소 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밝히고자 한다.

5) 정근식 <중국의 한국전쟁 기억과 기념: 항미원조기념관을 중심으로>, 2016. 전쟁기념관과 (역사)박물관은 공통점이 가지고 있고 모두가 물질화 기억의 재현과 재생산의 공간으로서 특정한 지역에서 정치적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단락의 내용을 직접 정근식의 논문의 일부를 참조하여 인용했다.



<표 1>. 2012년 중국 5개 소수민족 자치구의 박물관 수

1.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2.1 민족과 민족주의

미국 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이 그의 저서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에서 역사사회학과 비교분석의 시각으로 민족주의에 대해 일반적인 역사논증을 구사하였다.

그는 가장먼저 민족(nation), 민족성(nationality), 그리고 민족주의(nationalism)가 일종의 ‘특수한 문화적 인공제품(cultural artefacts)’이라고 규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적 인공제품은 일단 창조되면 고착화될 뿐 아니라, 불일치한 자각 상태에서 다양한 사회영역으로 이식될 수도 있다. 이 말은 즉 이와 같은 인공제품은 기타 정치적 또는 의식적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동시에 이러한 힘에게 흡수될 수 있다. (<Imagined Communities>제1장)

앤더슨에 따르면 ‘민족’의 본질은 일종의 근대적 상상의 형태이고, 이는 인간의식이 근대적 진로에 진입했을 때 일어나게 된 변화다. 이러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교공동체, 왕조, 그리고 시간 관념의 몰락에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구 세계관이 일단 인간 마음속에서의 지배 지위가 상실하게 되면 이로부터 ‘민족’에 대한 상상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사회구조적 조건, 즉 ‘자본주의, 인쇄술 그리고 인간 언어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에 있다.’ 이들의 ‘우연적이지만 폭발적인 상호작용’이 라틴문자의 몰락과 방언적 ‘인쇄언어’의 발전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개별적인 인쇄언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세속적인 방언 공동체’가 곧바로 ‘민족’의 원형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 앤더슨은 민족이 도대체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강렬한 애착과 정나미를 일깨울 수 있는가를 설명한 바가 있다. 그에 따르면 민족에 대한 상상이 사람들의 강렬한 사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는 민족주의에 대한 논증은 세 가지 흐름의 모델을 통해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미주모델’인데, 이는 일종의 언어요소를 중심으로 전개한 민족주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둘째는 민족주의는 대중성이 있는 언어민족주의로서 19세기에 유럽에서 불러일으킨 것이다. 셋째는 19세기 중엽 이래 유럽국가들 내부에서 일으킨 ‘공식적인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이다. 앤더슨은 이 세 번째 흐름의 민족주의는 두 번째 대중적 민족주의에 대한 반동과 모방의 결과물이라고 결론지었다. 좀 더 풀이하면, 1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식민지 민족주의는 사실상 공식적 민족주의의 또 다른 일면인 제국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여겨진다. 상기와 같이 앤더슨은 민족주의의 기원과 분포의 복잡한 과정을 논증하였다. 요컨대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유사한 ‘불균형적이고 합병적인 발전’ 방식으로, 미주에서 유럽을 거쳐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일파만파로 확장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박물관 분석은 바로 상기에 제시한 앤더슨의 민족주의이론을 기초로 하여, 그의 ‘박물관의 정치

성'이론(<Imagined Communities> 제9장)을 모토로 삼아 진행한 것이다. 앤더슨은 박물관과 박물관화의 상상이라는 것은 모두 심원한 정치성을 띠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에서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앤더슨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를 통해 이를 논증하였다: 우선 고고하고 유물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국가에서 출자하여 전통문화서적을 인쇄하는 것 등은 모두 급진주의자의 압력에 대항하는 보수적인 교육계획이라 여길 수 있다. 다음으로 유적지를 재구축하는 지도원칙은 항상 건축자와 식민이 되고 있는 현지인을 같은 등급구조에 두고 있다. 이 점을 봤을 때, 유적지를 재구축하는 것은 현지인들에게 그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지막 이유는 박물관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지도와 접근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 날이 지날수록 관광업과 연계 있는 고고학자는 정부를 일반화시키며, 박물관화의 유적지도 식민지 정부가 통치를 실시하는 권위의 상징(regalia)으로 의미 부여되고 있다.

1.2.2 집합기억과 역사의 재구성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이라는 개념은 1925년 프랑스 사회학자인 알박스((Maurice Halbwachs)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 틀(the social frameworks)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억을 각인하고 회복시키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집합기억은 각종 사회 집단의 정체성 구축과 응집력 형성의 토대로서 대중매체 등 수단으로 통해 과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고 집단과 사회의 기억을 보존하고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알박스에 따르면 한 민족이나 사회의 기억은 과거를 재구성한 것이

고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선택적으로 감시한다. ‘시기별로 구현되는 다양한 역사적 견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현재의 신앙, 취미와 소망 등을 통해 부각된다는 점에서 역사는 상이한 주장을 구현한 모습을 시기별로 촬영한 스냅샷사진과 동일시할 수 있다. 알박스가 강조한 과거란 개념은 현재의 문제를 대응할 때의 마인드(mind)와 의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집합기억의 본질은 과거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준하여 과거를 재구성한 산물이다.

알박스가 <On Collective Memory>에서 집합기억이 나타난 형식에 대해 제시한 바가 있다. ‘기뻐 날 뛰는 시기와 일상생활시기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여백공간은 사실상 집합기억에 의해 채워지고 유지된다. 통상 이러한 집합기억은 각종 의식이나 의례적인 히어로즈 거사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시인 혹은 서사시를 통해 기념적 의의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알박스가 강조하는 ‘기념적인 모임/집회’의 중요성을 감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상상 속에서 과거를 재연하고 이로부터 집합사상이 재현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과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알박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고대사회의 힘’을 강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고대사회에서 ‘고대의 표징’은 집합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고대사회의 힘으로부터 부여 받은 모든 것들 과 함께 우리에게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고대의 표징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힘이 더욱 방대할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이외에도 알박스는 언어를 집합사상의 선결 조건으로 간주하여 언어가 없는 기억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마침 언어 혹은 언어와 관련된 사회관습의 체계에 의해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의 과거를 재구성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박스의 기억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관념으로 충분히 기억을 대항하고 극복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알박스와

달리 뒤르켐은 상반된 의견을 내세웠다. 뒤르켐은 역사적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기적인 기념일, 경축일, 명절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사건들은 서로 다른 시대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적어도 서로 다른 시대간의 응집력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

집합기억이라는 개념은 알박스가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최근 몇 년에 중국 학계에서 이 개념을 빌어 중국의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남경대학교 학자 주하이연(周海燕)이 2014년에 발표한 <매체와 집합기억에 대한 연구>에서 집합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대사회에서 매체를 통해 집합기억을 본존하고 전파하는 데의 중요한 작용을 밝혔다. 이어서 인터넷과 매체를 통해 집합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2016년 중국학자 장펑(張朋)이 <정체성과 집합기업의 건축: 진독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에서는 집합기업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동시에 진독수에 대한 분석함으로써 이 개념을 다시 발전하였다. 그는 “단층/단열한 기억” 또한 “대향한 기억”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1932년 공산당과 국민당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독수를 해설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주하이연의 연구에 비해 장펑의 연구가 더욱 과감하고 선견이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박물관에 전시된 역사를 집합기억으로 간주하고 역사박물관을 집합기억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여김으로써 내몽골 역사박물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서 정부가 어떠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역사를 추가 또는 삭감한다는 특징은 장펑의 “단층/단열한 기억”이라는 용어를 빌어 설명하였다.

1.2.3 다민족국가와 민족통합

“다민족 국가란 다양한 민족 집단이 함께 생활하고 공존하는 나라

다. 민족간 관계(族際關係)의 변화는 다민족국가의 통일, 평화와 사회안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다민족 단체들을 하나의 국가 공동체로 통일 시키는 것은 다민족 국가로서 직면하게 될 가장 기본적인 정치문제이다.”⁶⁾그런데 몽골족은 민족공동체 정신과 소속감이 지극히 강한 민족 단체에게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따라서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몽골족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내몽골 지역을 상대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몽골족 집단을 국가 공동체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첸(馬晨)에 따르면, “서로 다른 민족집단/그룹의 문화적 배경 하의 사람들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 방식으로 상호교류를 추진해오면서 궁극적으로 응집력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치적 신념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문화적 공감대와 공동의 교류수단에 의존해야 한다.”⁷⁾이러한 문화 공감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에서 내몽골 지역을 상대로 채택한 문화적 통치전략이 바로 박물관, 특히 역사박물관을 설립하고 발전 시키는 것이다. 이는 내몽골 사람들에게 국가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국가권위의 구축과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아주 큰 현실적 작용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민족국가가 내부민족을 통합할 때, 소수 민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민족적 개성/특성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 민족들로 하여금 최적화의 진전과정에서 더욱 크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입하도록 한다.”⁸⁾는 것이다. 이는 내몽골 역사박물관의 보편적 특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히 풀자면, 내몽골의 역사박물관은 보편적으로 몽골 역사문화와 한족문화가 서로 상응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6) 마첸, 馬晨. 다민족국가와 민족통합. 중국과학사회주의학회 당대세계 사회주의연구 위원회, 2012년.

7) 위와 같다.

8) 평건용, 馮建勇 근현대중국민족국가의 건축과정 (近現代中國民族國家建構之歷程) 社會科學2014잡지, 第二期.

문화가 모두 거시적인 중화문화로 간주된다.

1.2.4 선행연구검토

1) 내몽골 박물관에 대한 연구

우선 강타오(姜濤)와 어군(俄軍)의 <박물관학개론(博物館學概論)>은 중국 최신의 연간 대표적인 박물관학적 저작이다. 이 책은 중국 역사의 맥락에서 출발하여 박물관에 대한 이론, 보유 유물, 진열, 관리 그리고 건설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중국의 특색을 잘 결합하여, 박물관의 이론과 중국 여러 박물관의 예시를 제시하고, 박물관학을 계통적이고 전반적인 방식으로 소개하였다. 본 논문의 박물관의 분류방식은 이 책을 참고하여 거울로 삼았다.

내몽골대학교의 다른 학자 장레이(張磊)가 쓴 논문 <내몽골 현급박물관의 발전에 대한 분석-開魯현, 서우주목친기박물관을 중심으로(內蒙古旗縣博物館發展方向分析——以開魯縣、西烏珠穆沁旗博物館爲例)>은 2005년부터 내몽골이 중소형 박물관 사업이 번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밝히고, 구·현급 박물관은 내몽골지역 내 동부, 중부, 그리고 서부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대형 박물관에 비해 더 분명한 지역적, 민족적 특색을 보유하고 있고, 민중들에게도 내몽골 사회에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소형 박물관의 건립과 다양한 전시회의 개최는 국가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소수민족 지역의 중소형 박물관 건립을 지원하는 이유와 박물관 건립이 지역의 민중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수민족 지역 관리에 어떠한 정치적인 효과를 미쳤는지와 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내몽골 박물관에 대한 기존연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학계의 박

물관 연구는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 그리고 경제적 등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박물관 사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학자들이 다양한 역사자료와 실태조사 기록을 이용해 대형박물관, 중소형박물관, 전시회, 국가 정책, 역사사건 등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몽골 박물관 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남아 있다: 기존연구는 정치적 시각에서 내몽골 박물관을 연구한 것이 거의 없다. 즉, 기존연구들은 내몽골의 박물관을 주로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 시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로는 내몽골 박물관을 통해 어떤 정치효과를 실현하는지, 국가가 소수민족 지역의 박물관 건립을 지원하는 이유와 박물관 건립이 지역의 민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기존연구를 보면 내몽골의 개별적인 박물관의 특징이나 특색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내몽골 박물관들의 전체적 특징이나 내몽골 각 지역의 박물관들의 특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규모가 광활하고 지역별 차이가 많은 내몽골은 각 지역의 박물관(특히 역사 박물관)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전시하는지, 어떤 사상을 선양하는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는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지역적 특징에 따라 각 지역의 박물관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내몽골 박물관의 전체 분포의 특징은 무엇인지는 아직 연구되지 못한 부분이다.

2) 칭기스칸릉(박물관)에 대한 연구

중국 학계는 칭기스칸릉박물관에 대해 어떤 연구를 전개하고 있을까? 현재까지 칭기스칸릉에 대한 연구는 4,000편이나 된다. 그 중에서는 역사적 분석과 문화적 분석이 압도적으로 많다. 본 논문에 사용할 기존연구는 다음과 같다.

란주대학교 학자 장정우(張振宇)가 쓴 <칭기스칸릉의 천이 시말과 상관문제 (成吉思汗陵遷移始末及相關問題)>는 필자가 검색했던 연

구 중 상대적으로 칭기즈칸릉의 형성과정을 가장 전반적으로 정리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다양한 자료와 여러 나라의 역사적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생동감 있는 필치로 칭기즈칸릉의 ‘세 번의 대천이’를 그려냈다. 그러나 칭기즈칸릉의 역사적 유래에 대한 묘사가 많이 부족하며, 공산당이 주도한 ‘제3차의 천이(第三次大遷移)’에 대해서는 주로 찬양하는 인식을 기지고 공산당이 내몽골의 전통 문화와 평화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 것을 드러냈다. 다시 말해 그는 한 정당의 입장에서 그 천이를 묘사하기에 객관성이 희박한 연구로 치부할 수 있다.

중국 중앙미술대학교 학자 왕홍촨(王紅川)의 <칭기스칸 춘계제사의식의 실태조사와 연구(成吉思汗春季大點祭祀儀式傳承現狀調查研究)> 는 2006년 칭기스칸릉 제사의식의 전체 과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제사의 형식, 내용, 참석자, 그리고 제사의 변화 등을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미학적 시각에서 연구를 전개했지만, 칭기스칸 제사문화의 잠재적 위기를 직면하여 밝힌 것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는 국가가 칭기스칸릉을 과도하게 개발하는 것을 권리 침해 행위라 여기고, 일부의 정책으로 인해 칭기스칸 제사문화가 계승될 수 없는 위기를 지적하였다.

이 외에 칭기스칸릉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칭기스칸릉(박물관)을 통해 어떤 정치효과를 실현할 것인지, 국가가 매년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이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족들을 융합시키는 과정에서 칭기스칸릉 제사에 참여하는 민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3) 북방공정에 대한 연구와 비판

한국에서는 중국정부가 내몽골에 취한 통합정책과 행위를 “북방공정”이라고 부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문헌뿐 아니라, 영어 문

현, 몽골 문헌을 모두 찾아 보았지만 “북방공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에서 이른바 “북방공정”은 한국학자 박원길이가 2007년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동북공정을 통해 내몽골 역사 서석의 편찬을 결합하여 “북방공정”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우선 중국정부의 내몽골에 대한 통합수단은 존재하지만, “동북공정” 처럼 대규모의 격식화된 공정에 대한 명문이나 문서가 없는 경우 동북공정에 따라 명명하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다.

ㄱ. 박원길의 북방공정 연구

한국에서 처음으로 “북방공정”을 제시하는 사람은 박원길이다. 그는 2007년 8월에 투고하고, 11월에 심사된 논문 <북방공정의 논리와 전개과정 연구-원나라는 몽골의 지배사인가, 중국사인가>에서 처음으로 “북방공정”이란 용어를 제시했다; 2008년 출판된 저서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에서 박원길은 앞의 논문을 다시 정리하여 제5편 <원나라는 몽골의 지배사인가? 중화인민공화국사인가?>란 제목으로 글을 출간하였다.

몽골전문가 박원길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이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몽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중앙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에 석사과정을 마친 후 대만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인터뷰 기록에 따르면, ‘한국과 몽골은 미래에 역사, 문화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몽골을 알면 고구려가 보인다’고도 말했다. 특히 동몽골에는 고구려의 시원을 알려주는 전설과 유물이 많이 있어 한국과 몽골의 공동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몽골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작업인 ‘동북공정’은 몽골을 대상으로 하는 ‘북방공정’이 원조입니다. 중국은 몽골의 중요성에 대해 1911년에 이미 눈을 떴습니다.”⁹⁾

9) 무한뉴스. moohannews. <http://mhnn.tistory.com/entry>

박원길 논문에 따르면, 북방공정은 191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동북공정보다 더 일찍 나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행하고 있는 서남공정, 서북공정, 동북공정 등은 1911년 이래 몽골족의 분리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몽골족과 연계를 맺고 있는 티베트나 신강의 서몽골은 하나의 벨트가 되어 움직이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처음 목격한 때가 바로 1911년이다.”¹⁰⁾ 그러나 “북방공정”을 확실하게 언급한 명문이나 참고문헌이 전혀 없다. 그는 북방공정이 존재할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역사사건을 예로 들어, 역사상의 변강소속민족정책을 따라서 북방공정이 존재할 거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역사물들의 논리적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북방공정을 밝혔다. 즉, 1985년 출판된 <몽골족간사>, 1991년 출판된 <몽골족통사>, 2001년 전자판 몽골족통사의 편찬, 2002년 <몽골민족통사>, 2004년 10권 본 몽골족통사 등 북방공정의 논리를 반영한 몽골역사 관련 대표 저작물로 북방공정을 설명했다.

ㄴ. 이천석, 김재기의 북방공정 연구

박원길 이후, 북방공정에 대한 연구가 두 개 더 나왔다. 하나는 2009년 영남대학교 교수 이천석이 쓴 <정체성의 정치-중국 북방공정과 몽골사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이고, 또 하나는 전남대학교 교수 김재기가 쓴 <삼몽통일론(三蒙統一論)과 중국의 북방공정에 관한 연구>이다. 참고문헌을 분석하면, 둘이 연구한 “북방공정”에 대한 실제적 근거는 모두 앞에서 언급한 박원길의 연구를 참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천석의 논문 중에 북방공정에 대한 참고 문헌은 박원길의 연구밖에 없다. 김재기는 똑같이 박원길과 이천석 논문을 참조하여 북방공정에 대한 논거를 전개한다. 뿐만 아니라, 논문구성도 박원길과 비슷하게 역사사건의 예를 통해 북방공정의 필

10) 박원길. <북방공정의 논리와 전개과정 연구-원나라는 몽골의 지배사인가, 중국사인가> 2007.11.10

요성과 논리적 전개과정을 논하곤 한다.

ㄷ. “북방공정”연구에 대한 평가

앞에 언급한 북방공정에 대한 연구는 몽골족 단체를 통합하려는 역사적 의거와 몽골역사와 관련된 대표적 저작물들을 통해 중국의 “다민족국가론”을 밝힌다. 이는 다민족국가론과 민족통합이론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북방공정’에 대한 실질적 근거와 증거가 없기에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동북공정에 의거하여, 북방공정(몽골족 통합 목적), 심지어 서남공정(티베트족 통합 목적), 서북공정(위구르족 통합 목적), 남방공정(동남아 접경지역 관리목적), 해양변강공정(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패권 다지기)까지 있다는 것을 추측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원리에 부합될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제껏 한국에서의 북방공정에 대한 연구는 이 네 편과 <몽골국의 중화민족 편입과 북방공정>¹¹⁾을 합치면 모두 다섯 편밖에 없다. 이 상황에 근거하여 북방공정에 대한 연구가 동북공정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충분한 자료와 근거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몽골 박물관의 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즉, <內蒙古自治區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規劃綱要.2001年>,<內蒙古自治區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2006年>,<內蒙古自治區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2011年>,<內蒙古自治區文化建設第十二個五年規劃>,<內蒙古自治區哲學社會科學規劃項目管理辦法>)에 의거하여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자료들에는 국가가 내몽골 지역에 맞춰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명확한 계획과 목적 등이 나와있고, 내몽골의 몽골사 편찬에 관한 계획과 요구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본 논문의 뒷부분에서 다룰 수 있다.

11) 4 페이지의 익명리포트이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내몽골 박물관 수와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통계자료(통계연감)를 이용함과 더불어, 통계 자료에서 일부 박물관(예, 일부의 민영박물관 혹은 등록하지 않는 박물관)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구글 지도, 바이두(百度) 지도 등 인터넷 지도를 활용하여 박물관의 통계자료를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211개의 내몽골 박물관들을 지역별로 정리하고, 공식 사이트, 블로그, 잡지, 신문기사, 뉴스보도 그리고 논문서적 등 자료를 통해 각 박물관의 건립 시간, 소속(국유 박물관 아님 민영박물관), 전시하는 내용 등 정보를 정리하고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내몽골 박물관의 건립상황을 지역별, 시기별로 분석하고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문헌연구의 여러 한계성을 감안하여 박물관의 모습을 보다 현실성이 있게 접근하기 위해 필자는 일부 박물관을 몸소 방문하였다. 특히 뒷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할 소군박물관은 필자가 직접 현장에서 관람하고 사진자료를 수집하였다. 소군박물관에 대한 분석은 주로 박물관에서 묘사한 왕소군과 역사문헌에서 소개한 왕소군의 비교분석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그 중 역사문헌에서 소개한 왕소군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고문헌자료를 열람하고 인용하였다.

본 논문의 또 다른 분석대상인 칭기즈칸릉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를 결합하였고, 중점적으로 바라볼 칭기스칸릉 제사의식의 참석경험에 관해서는 개인의 개별적이고 내면적인 경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에 비해 객관적 실재에 대한 절대적 지식보다는 상대적이고 맥락적 지식, 현상에 대한 예측과 통제보다는 이해와 설명을 중시한다. 특히 칭기즈칸릉 제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서술은 현상을 명확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정한 현상이 미화되는 과정을 함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당연시해왔던 현상을 반성적으로 바

라보고 재구성해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칭기즈칸릉에 대한 연구는 우선 역사서적, 논문 등 문헌자료를 통해 칭기즈칸릉의 유래를 파악하고, 기록보관소자료와 일부의 논문서적을 수집함으로써 칭기즈칸릉의 ‘세 차례의 대천이’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칭기즈칸릉의 천이와 제사의식에 대한 과거와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동시에, 민중들의 심리를 고찰하기 위해 칭기즈칸릉 제사의식에 참석했던 몽골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 본 논문에서 언급한 박물관 및 칭기즈칸릉 관련 정책과 방안 등은 주로 공식문건, 신문 뉴스 등을 통해 시기별의 정치적 지향을 파악하였다. 예컨대 200년부터의 ‘5개년 계획’, <내몽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문서, <전구특색박물관 체계건설에 대한 의견>, <민영박물관의 발전에 대한 의견>, <박물관 관리조치> 등 공식문건자료를 박물관의 건립상황과 결합하여 설명하였다.

1.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 그리고 2개의 본문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내몽골 역사박물관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내몽골, (외)몽골의 분단 역사를 소개하고 내몽골 자치구의 성립 과정을 기술하였다. 이 부분은 주로 몽골에 대해 이반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오해를 해명하였다. 2절에서는 중국 정부가 시기별로(2001년-2005년, 2006년-2010년, 2011년-2015년) 내몽골 지역에 박물관을 건립하였던 노력과정과 정치의도를 밝혔다. 제 3절은 내몽골 박물관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형성과정을 설명하는데 내몽골의 전형적인 도시인 후허하오터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내몽골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의 특징(전체적 특징과 지역별 특

정)을 개괄함으로써 내몽골 역사박물관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작용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군박물관의 사례를 들어 내몽골에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특별히 강조한 점과 추구하는 정치 목적을 고찰하였다. 소군박물관에 대한 분석은 역사문헌에서 나온 왕소군과 소군박물관에서 묘사한 왕소군을 비교함으로써 진행한 것이다.

3장에서는 칭기즈칸릉을 통해 중국정부가 내몽골 지역을 통합하는 지향을 밝힘과 동시에, 몽골족 거주자들의 칭기즈칸릉 박물관 현지 참여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정서적 갈등을 고찰함으로써 칭기즈칸릉을 통해 통합하는 실제효과를 검토하였다. 1절에서는 칭기즈칸릉의 역사적 유래를 설명하고, 그의 역사상의 세 차례의 대천이를 설명함으로써 칭기즈칸릉을 점유여부가 내몽골을 통합여부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짐작한 것이다. 2절은 연구참여자들이 칭기즈칸릉 제사의식에 소극적인 원인을 분석하였고 외부자들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설하였다. 3절에서 우선 친릉제사의 현재 상황을 고찰하기 위해 진행한 인터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인터뷰 결과를 결합하여 현재 많은 몽골족들이 칭기즈칸릉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몽골족들이 외부자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해부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향후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박물관과 같은 하드한 매체를 통해 기억을 재현과 재생산하는 정치적 수단을 인식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소속민족을 과도하게 통합할 때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에 민족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장 내몽골 역사박물관의 형성과정

2.1 내몽골, (외)몽골의 분단역사 및 내몽골의 성립

몽골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오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내몽골과 외몽골의 분단이 장개석 개인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상 내/외몽골 분단의 역사는 청나라(1644-1911) 건국 이전부터 시작한다. 다른 하나로 내몽골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 설립된 첫 번째 소수민족자치구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내몽골은 신중국 건국 이전에 건립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두 부분을 설명하겠다.

1). 분단역사

청나라 건국 이전, 즉 명나라시기(1368-1644)에 주원장(朱元璋명태조.1328-1398)은 북원(北元)에 빈번한 군사 공격을 실시하였으며, 그의 대몽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는 북원의 세력을 빈번하게 약화시키며 동시에 내정을 적극적으로 안정시켰다. 그가 제정한 위소제도(Wei and Suo Institution in the Qing Dynasty)는 군사적 승리에 큰 힘이 되었다. 명나라의 지도를 보면 당시 명나라의 북쪽 국경선은 대략 오늘날의 내몽골 일대까지 나아간다.

1644년 만족이 청나라를 건국한 이후, 이미 내몽골과 외몽골에 대한 분리정책은 시작되었다. 당시의 몽골 지역은 모두 외판몽골(外藩蒙古)이라고 총칭하여 불리며, 외판몽골은 다시 내자사커몽골과 외자사커몽골로 나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내몽골 지역이 내자사커몽골에 해당하며, 외자사커몽골의 대부분의 지역이 오늘날의 (외)몽골이다. 청나라는 “월계금지”¹²⁾라는 정책을 세웠으므로 내/외자사커몽골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김선호(2014), <내몽골, 외몽골-20세기 분단의 몽골역사>

1911년 청나라 멸망 이후, 내몽골과 외몽골은 다시 통합될 수도 있었지만 당시 몽골족 지도자의 나약함과 내부정권의 부패, 또한 이미 500여 년간(1388년 捕魚兒海大捷대첩에서 이때까지) 고착화된 분단 등의 요인이 이를 어렵게 하였다. 또한 1921년까지는 소련 정부가 군대를 파견하여 몽골로 들어가 주로 외몽골 일대에서 활동하였으며, 1924년 몽골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다. 따라서 이미 이때부터 (외)몽골은 실질적으로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내몽골의 성립

스탈린은 (외)몽골의 독립과 몽골인민공화국의 건립을 촉진하는 동시에, 내몽골의 독립운동을 제제함으로써 중/소관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내몽골과 외몽골이 하나로 통합될 별도의 기회는 소련의 간섭으로 다시 사라졌다. 한편 당시 내몽골은 명분으로서나 실질적 측면에서나 중국의 소유였다. 물론 당시 중국은 혁명시기에 처해 있었지만 내몽골의 소유권은 질의될 수가 없었다. 내몽골자치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혁명의 승리를 취한 후 1947년에 수립되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건립되었다.

내몽골자치정부의 건립과 중국공산당에의 귀속은 다양한 요인과 조건이 작용하였지만,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우란후(烏蘭夫)라는 사람이 꼽힐 수 있다. 내몽골자치정부 수립 이전의 준비 작업에서부터 중국으로의 귀속에까지 일련의 활동은 우란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다음의 우란후에 대한 서술을 통해 그 시기의 내몽골의 발전과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우란후는 1906년 내몽골에서 태어난 몽골족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북평, 즉 오늘날 북경에서 학교를 다녔고, 1923년 학업 시기에 중국 사회주의청년단에 가입하였으며, 1925년 중국공산당원이 되었다. 같은 해 10월, 소련의 모스크바 손중산대학으로 파견되어 유학을 하였

다. 1929년 귀국 이후 西蒙위원회조직 서기로 임명되어 비밀 혁명 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1936년 그는 몽골지방자치정부위원회(蒙古地方自治政務委員會)의 보안대를 조직하여 항일무장폭동을 책동하였고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1937년에는 몽골족항일무장군대를 만들어 발전시켰으며 팔로군(八路軍)과 연락하게 된다. 항일전쟁 승리 이후 우란후는 다시 내몽골로 돌아가 혁명 사업을 계속하였다. 그의 지도하에 1946년 내몽골 동/서부의 자치 통일운동에 관련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1947년 5월, 내몽골 자치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그는 내몽골 자치정부의 주석으로 뽑혔다. 1948년 1월에는 내몽골 군대를 내몽골인민해방군으로 개명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우란후는 중공중앙내몽골 서기, 내몽골자치구 인민정부 주석,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등 매우 높은 지위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내몽골의 역사는 우란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이다. 그의 영향으로 내몽골은 공산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는 신중국 수립에 있어 개국공신이 된다. 논문 뒷부분에 소개할 우란후와 관련된 박물관과 기념관들은 현재 애국주의 교육의 기저로써 국민들의 민족적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장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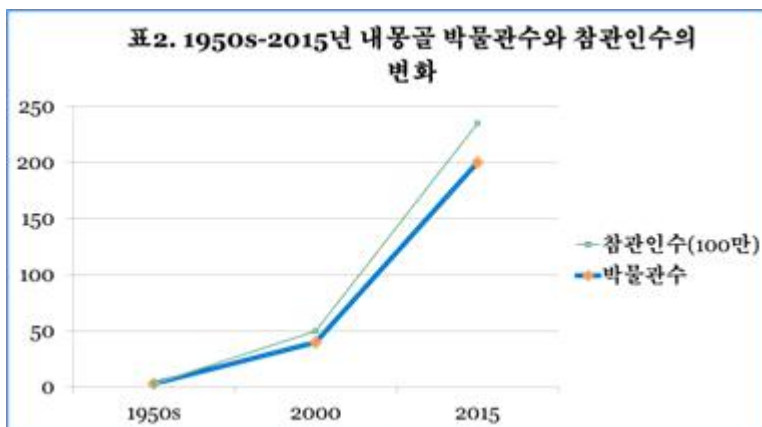
2.2 박물관의 건설과 정치적 재현

이 부분에서는 2000년부터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내몽골에서 박물관을 건립하고 내몽골을 통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시기별로 설명할 것이다.

2.2.1 2000년부터의 “5개년 계획”과 정책

표2에서 제시하다시피 내몽골의 박물관 수는 1950년대의 3개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에는 40여개, 나아가 2015년에 이르러서 무려 200

여개로 급증하였다. 따라서 2000~2015년의 15년동안은 내몽골 박물관 사업이 쾌속적으로 발전한 시기이다.¹³⁾ 한편, 방문인수도 박물관 수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00년대 1000만에 달하는 내몽골 지역인구가 방문하였고 2010년까지 2,500만에 도달하여, 이는 내몽골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방문할 만큼 박물관이 내몽골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방문인수가 무려 3500만을 돌파하였다. 이로부터 2000년~2015년까지의 15년 동안 중국정부가 내몽골의 박물관 사업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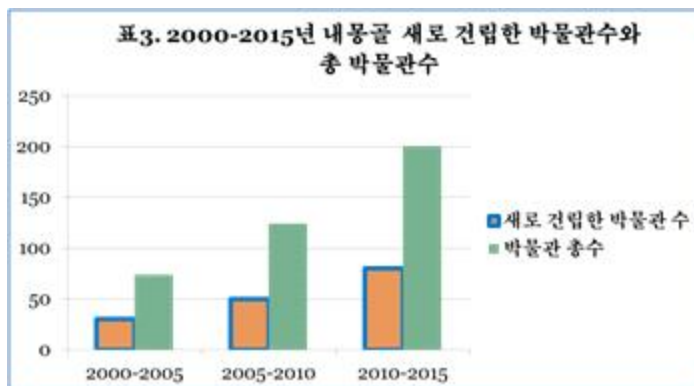


<표 2>. 1950s-2015년 내몽골 박물관수와 참관인수의 변화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이래 총 13차례의 ‘5개년 계획’을 실행하였다. 그 중에서 ‘제10차 5개년 계획’, 즉 2000년부터 내몽골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10차 5개년 계획’ 기간 (2000-2005년) 동안 내몽골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 <내몽골자치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內蒙古自治區國民經濟和社會發展)>문서를 내몽골의 발전강령으로 삼게 되었는데, 바로 이 문서에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요구를 명시되었다. 이를 적극

13) <http://nm.people.com.cn/인민웹> 內蒙古博物館走入尋常百姓家

적으로 이행한 결과, 이 5년동안(2000-2005) 내몽골 박물관은 30여 개가 증설되었다. 뒤이은 ‘11차 5개년 계획’시기(2006-2010년)에는 내몽골의 문화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2005년 말부터 내몽골은 박물관 사업이 번창한 지역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까지 자치구 전체에는 50여 개 박물관을 새로 건립하였고, 내몽골 내 12개의 도시 모두 박물관이 건립되었다; ‘12차 5개년 계획’ 시기(2011-2015년)에는 ‘11차 5개년 계획’ 논리를 강화하고, ‘민족문화강구(民族文化強區)’로 거듭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몽골의 박물관 사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였다. 참고로 이 시기에 80여개의 박물관을 새로 건립하였다. (표3)



<표 3>. 2000-2015년 내몽골 새로 건립한 박물관수와 총 박물관수

1) 2000-2005년 ‘10차 5개년 계획’ 시기

‘10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이 21세기에 들어온 후의 첫 ‘5개년 계획’이고 현대화 건설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중국이 새로운 모습으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내몽골 지역의 경제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박물관 사업도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내몽골자치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內蒙古自治區國民經濟和社會發展)--10번째 5개년 계획문서(第十個五年計劃綱要)>에서 “서부 대개

발(西部大開發)” 계획을 강조하였고, 경제발전하기 위하여 내몽골이 포함된 변강지역들의 경제 성장, 경제구조 조정,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 등 내용을 제시하였다. 내몽골 박물관 건설과 관련된 상세한 의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 지만, 특색이 있는 박물관을 건립해야 하고 박물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시한 바가 있다: “문화 사업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번영시켜야 하고, 내몽골 전 사회의 문화 생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문화시장 질서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내몽골 민족의 특색이 있는 문화관, 박물관(특히 현금이나 중소형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 시기의 문화적 요무다.”

2) 2006-2010년 ‘11차 5개년 계획’ 시기

‘11차 5개년 계획’시기가 ‘10차 5개년 계획’시기보다 문화발전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다. 10차계획 시기에 경제적 성장을 대폭으로 완성하였지만, 사회적 산업과 문화적 산업의 발전이 부족한 것을 의식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박물관과 같은 문화적 산업에게 투입하는 것이 이 시기의 발전 과제였다.

2005년 말부터 재무부지원으로 국가문물부가 현금 박물관 전시서비스(縣級博物館展示服務工程)라는 프로젝트를 ‘11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사업으로 시행하였고, 이외에도 기반시설 및 경영관리를 위해 다수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내몽골자치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內蒙古自治區國民經濟和社會發展)-11차 5개년 계획문서(第十個五年計劃綱要)>를 보면 내몽골을 ‘민족문화대구’로 만들기 위하여, “...중소형/현금(縣級) 문화관의 건립을 통해 문화공간이 확장되고, 내몽골의 박물관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과 민족특색이 있는 박물관의 건립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몽골민족박물관, 대요원시문화박물관, 우주항공박물관 등 39개의 지방색 박물관을 위주로 건설공사를 전개하겠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3) 2011-2015년 ‘12차 5개년 계획’ 시기

내몽골에 대한 ‘12번째 5개년 계획’ 문서 중 <내몽골자치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內蒙古自治區國民經濟和社會發展)> 방안을 제외하여, 문화발전을 중심으로 제출한 <내몽골자치구 문화건설--12번째 5개년계획(內蒙古自治區文化建設—第十二個五年計劃)>이라는 문서도 새로 나왔다. 이점을 놓고 보면 중국정부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내몽골의 문화적 산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몽골자치구 문화건설-12차 5개년계획>을 보면, 중국정부가 내몽골 지역에 많은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엿볼 수 있다: “문화가 다민족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원천이다…… 내몽골은 역사가 유구하고 잠재된 문화 재부가 풍부하여 초원문화가 유명한, 중화민족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이 초요사회(小康社會-중류수준의 사회)를 만드는 고비에, 변강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내몽골에서의 문화산업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것은, 다민족 단결력이 강화되고, 변강을 안정시키고, 국가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내몽골자치구 문화건설-12차5개년계획>에는 내몽골 내 박물관 건립에 있어 요구되는 세부사항도 나와있다. “1. 바오터우(包頭), 적봉(赤峰), 통랴오(通遼)¹⁴⁾를 제외하고, 다른 11개의 내몽골 도시의 박물관 총면적은 기준에 미달하기에 108957m²/제곱 미터로 넓혀야 한다. 2. 내몽골 내 120개 박물관, 기념관, 애국주의 교육기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무료개방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실시한다. 3. 재정지원 방면에 있어, 내몽골성급대중예술관에는 해마다 500만 위안(대략 9억 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시급예술관과 현급예술관은 각각 100만 위안과 30만 위안만큼 지원을 해야 한다. 4. 문화재 전송

14) 바오터우, 적봉, 통랴오: 내몽골자치구에 있는 도시 이름

자(문화유산을 이어받는 사람, 예: 개인박물관 주인 등)에게는 매년 1인당 2000위안(대략 40만 원)이나 지원하고, 이외에도 특히 중요한 박물관은 중점적으로 특수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2.2 90년대 말부터 박물관 정책의 변화

본 논문에서 내몽골 박물관 수를 시기별로 통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90년대말 이후부터 내몽골의 박물관 사업이 쾌속발전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고, 특히 2000년에 이르러 내몽골 박물관 수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박물관 정책을 고찰함에 있어서 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주목하여 집중분석을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 이 기간은 또한 다음과 같은 세 차례의 정권시기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장쩌민 집권시기(1993년-2003년), 후진타오 집권 시기(2003년-2013년), 그리고 시진핑 집권 시기(2013년-현재)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1) 장쩌민 집권시기(1993년-2003년)-박물관 사업의 시장화

이 시기는 박물관 사업이 본격적으로 쾌속발전 단계에 진입한 시기이다. 전국 박물관 수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장쩌민 시기의 박물관 건립속도는 이전 속도의 10배에 달한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정부에서 ‘시장화’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993년-2000년기간동안 정부는 다양한 명분으로 ‘문화경제’와 ‘문화시장’의 관리법에 대한 일련의 정책을 수립하였고, 재정(1993), 금융(1993), 세금수입(1993) 등 측면을 개혁하여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1997년 9월에 제시한 <사회주의초기단계의 기본강령>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문화’를 구축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문화대발전, 대번영(the Great Development and Prosperity)’

전략의 실행에 힘입어 박물관이 새로 건립되었고, 일부 대형박물관을 재구축, 증설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현금 박물관이 우후죽순 늘고 있었다. 이로부터 중국 박물관의 건폐율이 대대적으로 증가하였다.

2) 후진타오 집권시기(2003년-2013년)-소프트파워를 향한 주목

후진타오 집권이래 새로 건립된 박물관 수는 장쩌민 시기에 비해 배로 많았다. 박물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그다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하드파워보다 소프트파워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컸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산업화 혹은 시장화에서 내재적 힘으로 주안점을 전이하였다. 앞서 2002년에 개최한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문화정책은 대체로 문화산업과 문화사업의 두 가지 분야로 구분되었다. 이와 동시에 ‘문화자산의 유연성’을 강조하여 문화산업이 실전, 생활 및 대중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로부터 문화의 유연성은 일종의 경제산업가치와 관련된 매체로 집권자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새로운 문화의 인도작용에 의해 문화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상승하였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이 시기 중국사회체제는 전반적으로 전환기에 이르렀는데, 정보수익방식의 다양화와 전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문화정책에서도 ‘사회적 핫이슈에 대한 인도작용을 중시하고, 사회여론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대외언론 공식발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환언해서, 문화자체의 독자적인 가치를 새로이 발견하고 산업속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의 정책차원에서 의미하는 문화는 국가 내부의 다양한 사회계층을 정합하고, 사회적 화합을 강화함과 더불어 민족간의 구심력을 응집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또한 2004년에 발표한 <중공중앙 당의 집권력 구축에 대한 결의>에서 문화산업의

대외적인 발전에 주목하기도 하였다는 것도 엿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추진하고 국가문화의 전반적인 실력을 증진한 뒤, 중화문화를 대외적으로 이끌어내감으로써 세계적인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이 시기의 집권자들이 문화산업을 대폭적으로 개방하려는 지향과 포부를 살펴볼 수 있다.

3) 시진핑 집권시기(2013년-현재)-박물관 사업의 활성화

시진핑이 집권이래 새로 건립된 박물관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후허하오터시의 사례를 들면 2013년 이후부터 후허하오터시에서 새로 건설된 박물관은 불과 3개밖에 없었고 거기에 새로 건설된 박물관보다 기존의 박물관에 현대화 박물관기술을 투입시키거나 시설을 개선하는데 더욱 힘을 쓰고 있다.

또한 이 사이에 시진핑은 “박물관을 활성화시키자! (讓博物館活起來)”라는 구호를 내세운 바가 있다. 그는 현재 중국박물관사업은 이용율이 낮다는 보편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기에 ‘잠들고 있는’ 문물을 깨우고 박물관 간의 상호유동성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16년 11월, 국제박물관 고급회의>를 제시하였고 2016년 6월 24일에는 내몽골자치구 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인준하였다. 회의에서 시진핑의 “박물관을 활성화시키자! (讓博物館活起來)”라는 구호와 그의 주장은 다시 강조되어 과학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박물관에서 스마트서비스, 스마트관리와 스마트보호를 실행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외에도 필자는 시진핑 집권 당시 중국박물관 사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2015년 2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박물관조례>의 발표다. 이 조례는 처음으로 박물관과 관련 내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박물관의 정의, 분류, 역할, 그리고 관리

방법 등내용을 공식화하였다.

2.3 내몽골 박물관의 형성과정과 특징

2.3.1 내몽골 박물관의 형성과정- 후허하오터시를 중심으로

2017년에 이르러 후허하오터시에서는 박물관을 총 48개를 조성하였으며, 그 중 두 개의 박물관인 초원기석박물관(草原奇石博物館)과 내몽골북상메밀민속박물관(內蒙古北上蕎麥民俗博物館)의 소속(국유나 민영이나)은 아직 정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46개 박물관 중 국유 박물관이 21개이며, 민영 박물관이 25개로 지정되었다. 연도순에 따라 구분해 보자면 50년대에 모두 3개 박물관이 건립되었는데, 이는 모두 1957년 “내몽골 자치구 성립 10주년 축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모두 국유박물관에 속한다; 그러나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에 새로 건립된 박물관은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해 70년대에 이르기까지 후허하오터시의 박물관은 여전히 3개 밖에 없었다; 연이나 80년대부터 박물관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90년대말까지는 후허하오터시에서 새 박물관을 6개나 증설하였다. 그 중에 하나는 민영박물관이며, 이는 후허하오터시에서 처음으로(1990년 7월) 조성한 민영박물관인 敕勒川민속박물관이다; 21세기 이래 후허하오터시 박물관 사업은 본격적으로 번영기에 들어섰다. 2000년에서 00년대말까지 14개의 박물관이 준공되었고, 00년대말에서 2012년까지는 민영박물관 급속도로 증가한 시기였으며 12개 민영박물관을 건립하였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즉 7년동안 11개 박물관이 거듭 세워졌다. 정리하자면, 21세기에 들어 후허하오터지역에 총 37개의 새로운 박물관이 건립되었고, 그 중 국유박물관은 13개, 민영박물관은 24개로,

민영박물관이 국유박물관의 수를 넘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허하오터 박물관 건립의 내용, 취지 그리고 방향에 대한 발전과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50년대 후허하오터시 박물관의 건립

50년대에 건립된 3개 박물관은 모두 1957년 내몽골 자치구 창립 10주년에 건립된 것이며, 국유박물관 중에서도 높은 등급의 박물관이다. 당시 박물관을 세우게 된 취지는 몽골문화를 한층 더 선양시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역사를 설명하는 때에 몽골족과 민족의 역사적 연원을 드러내는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이전에 내몽골 인민의 혁명투쟁 역사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1957년 5월 1일에 본격적으로 건립되고 개관한 “내몽골 박물관(현재 “내몽골 박물관”)이라 부른다, “원”은 “권”보다 규모가 더 크고 정규화된다는 자치구 창립 10주년 축제 때의 중점 계획이었으며, 당시의 유일한 자치구등급 종합박물관이고, 중국소수민족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조성한 박물관 중의 하나다. 고대-근대-현대의 발전 속에서 드러난 넓고도 심오한 내몽골 초원문화와 풍부한 초원자원에 대해 주로 전시하였다; 이 곳에서는 칭기즈칸과 원(元) 왕조에서 출발하여 몽골족 기원에서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천 년의 역사를 지닌 고대 몽골 통사를 전시하였다; 또한 1919년 “오사운동”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될 때까지의 내몽골 사회현황과 혁명 문물 등을 위주로 한 내몽골 현대 혁명투쟁사를 전시한다.

한편, 1957년 5월 5일에 완공한 “내몽골자치구박물관”은 모두 자치구 창립된 10주년 때의 중요한 계획 중 하나였고, 국유 1등 박물관이다. 그는 4개의 전시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내몽골 생물진화의 역정과 고비사막의 변천을 전시하고 있고, 둘째는 흉노, 동호, 선비, 돌궐, 거란, 당항, 몽골 등의 8개 민족의 역사를 보여 주며, 셋째는

내몽골 인민이 “5·4운동”에서 신중국 수립할 때까지의 혁명투쟁 역사를 전시하는 동시에, 뱃째는 몽골족, 오르손(Orogen)족, 오원커(Ewenki)족, 다우르족(Daur族) 인민들이 창조한 이색적인 민속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는 “후허하오터시박물관”이다. 그는 국유 2등 박물관이며, 그의 건물은 청나라시기에 조성한 공주택(公主府)에서 건립한 것이다. 중국은 한나라 때부터 황제가 비싼 혼수품과 함께 자신의 딸이나 여동생, 미녀 등을 주변 다른 왕조에게 진상하는 화친(和親)전통이 있었다. 청나라 강희(淸康熙) 연간 1689년에 강희 왕(Emperor Kangxi)은 그의 여동생 징이(靜宜)공주를 당시의 몽골 왕의 큰 아들인 가르단도르기(葛樂旦多爾濟)와 결혼시키고, 1691년에 다시 자신의 6번째 딸 커진(恪靜)공주를 가르단도르기(葛樂旦多爾濟)의 큰 아들 든도브도르기(敦多布多爾濟)에게 진상하였고, 커진공주가 공주택에 입주한 이후 옹정(雍正) 연간 1723년에 옹정왕이 진상했던 허쉬(和碩)공주와 그들의 후예도 공주택에 살았다. 몽골족과 만족의 혼인관계를 통해 서쪽과 북쪽을 통치하는 것은 청나라 정부의 기본 국책이었다. 이 박물관은 바로 이 시기 역사를 전시하여 몽골족과 만족 간의 역사적 연원을 보여주는 것에 의의가 있다.

2) 80년대에서 90년대말까지 후허하오터시 박물관의 건립

80년대에서 90년대말까지 후허하오터시에 박물관은 6개가 개관되었다. 이전과 달리, “처러천(敕勒川)민속박물관”이 1990년 7월 8일에 내몽골의 첫 민영박물관으로서 후허하오터시에서 건립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박물관 사업이 점차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역사박물관뿐 아니라 지질박물관도 그 시기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또한 도심지뿐 아니라 주변지역으로까지 나아가 현급(縣級)박물관이 처음 건립되며 박물관의 서비스 범위가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박물관

관 전시 내용은 50년대에 비해 애국주의와 민족단결의식 등을 더욱 부각시킨다. 50년대 박물관은 몽골족의 민족 특색과 민속문화를 위주로 전시하였고, 일부에서만 몽골족과 청나라의 연원을 보여준다. 그리고 애국주의에 대한 교육 지향적 목적이 아닌, 몽골 민족 문화의 풍부함과 심오함에 대한 찬사에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80, 90년대의 박물관은 국유와 민영박물관 모두 당원교육기지 혹은 청소년 애국교육학습장으로서의 목적으로 건립되었기에, 거의 모든 전시가 몽골족과 한족 간의 연원에 더욱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민족 간의 단결력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도 알아볼 수 있다.

처러천(敕勒川)민속박물관은 한 몽골족 당원 간부이자, 전 내몽골박물관 관장인 ‘문호’가 건립한 것이다. 그의 박물관 건립 목적은 “건국 이후 사회주의 사업이 나날이 일어서고 많은 예스러운 민족 민속 문물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기에 속히 이 유물들을 구호하고 후대에 애국주의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 박물관은 각종 농기구, 도구, 책, 장부, 차량 등의 진품 및 자수와 같은 민간 공예품을 통해 여러 민족의 관혼상제 풍습을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농업 및 유목업, 상업 활동의 역사를 반영한다. 그리하여 후허하오터시가 명나라 중엽 이래에 몽골족과 한족이 함께 거주하며, 농업과 목축업을 병행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남은 5개의 국유 박물관 중 1989년에 건립된 “내몽골 지질광산 박물관”은 지질 박물관에 속한다. 이를 제외하고 남은 것은 모두 역사 박물관이다. 예를 들어 1992년에 준공된 “내몽골자치구 장군 관청 박물관”은 국유 2등 전문 역사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본래 청나라 때의 쑤이위안성(綏遠城) 장군 관청이었다. 쑤이위안성은 청나라 때 만군기(滿軍旗), 몽군기(蒙軍旗), 한군기(漢軍旗) 군대를 통솔하고, 서북지역 군정 권력기관을 지배하는 지역이었다.(需注釋：1954년 내

몽고자치구에 병합.) 쉰이위안성 장군 관청은 바로 청 왕조가 내몽골 지역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다. 이 곳은 남몽골(漠南蒙古, 주로 오늘의 내몽골)의 각종 사무들 및 서북용병, 중앙정부와의 소통, 그리고 변강지역과의 연락 등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군사단위였다. 이를 박물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변강안정과 민족단결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23일 조성된 “우란후기념관”은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 선전부에게 “전국 애국주의교육 시범/모범기지”라 명명되었다. 우란후는 본래 몽골사람이었고, 1925년 젊은 나이에 공산당에 가입하여 공산당원이 되었다. 이 때부터 공산당을 위하여 봉사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전후로 번역과 비밀리에 혁명작업 등을 추진한 바가 있다. 이어서 몽골족 항일 무장 세력을 창립하고 발전시켜 1947년 5월에 내몽골 자치구를 수립하였다.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에 자연스럽게 내몽골 자치구 인민정부 주석 또한 중공중앙 내몽골 지국 서기로 임명되었을 뿐 아니라, 내몽골 군관구 사령원, 중앙인민정부 위원, 정부원민족 사무 위원회 부주임과 중앙민족 학원 원장 등을 겸하게 되었다. 그 시기에 우란후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우란후가 공산당의 사회주의사업에 대한 공헌을 찬양하는 동시에, 당원 간부와 청소년들이 당사공부, 민족정신의 배양, 사상교육과 선전을 실시하는 중요한 창구로 지정하려는 시도였다.

1992년에 준공된 托克托박물관은 서북지역의 유일한 현금 역사박물관이며, 여러 가지 기관과 다른 왕조의 진품을 감추고 있고, 그 중의 西夏白圍棋子, 한나라云中承印, 淸康熙窯變天球瓶 그리고 역대 화폐 등 상당한 가치를 지닌 문물들을 가지고 있다.

1996년에 건립된 “후허하오터시 多松年열사 기념관”도 혁명열사라 부른 多松年가 살았던 장소에서 세운 것이다. 기념관 안에 다송년(多松年)의 무덤이 있으며, 글자, 이미지와 그림표 등을 진열함으로써 조국을 사랑하고 국가를 보답하는 정신을 선양하는 지향점을 보

이고 있다. 그 곳은 애국주의, 민족단결, 교육진보, 당내 기풍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1996년에 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3) 2000년에 들어 후허하오터시 박물관의 건립과 정책

2000년에 들어 박물관 수가 대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건립속도가 이전 속도의 10배를 넘게 되었다. 이 기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내렸던 정책들은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 2일 내몽골 자치구 정부가 <전구특색박물관체계건설에 대한 의견(關於全區特色博物館體系建設意見)>을 내렸고, 2006년 1월 1일에 <박물관 관리조치>를 실시하게 되었고, 2008년 1월 달에 <전국박물관, 기념관의 무료개방고지>정책을 전국적으로 펼쳐갔다. 2010년에 국가 문물국, 민정국, 재무부가 함께 <민영박물관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반포하였고, 2016년에는 내몽골 문물구가 <2017년 5월 이전에 기존 박물관체계에 대한 지능화 개조 완성>을 계획하였고, 2017년 내몽골 자치구 문화청이 <수정, 보완<내몽골 특색박물관체계의 건설에 대한 기획>>을 하달하였다.

민영박물관의 대폭 증가는 21세기 이래 후허하오터시 박물관 사업발전의 중요한 현상이다. 2000년에서 현재까지 후허하오터시 민영박물관 수는 국유박물관 수의 2배에 달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내몽골 자치구 정부의 지지와 정책적 유도의 결과물이다. 예를 들면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선정된 多倫馬具박물관은 개인이 설립한 박물관이지만 해마다 20만 위안(약 3500만 원)에 달하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의 민영박물관은 자금원에 따라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소장자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해서 개인자택에서 전시실을 개설하는 박물관이다. 2. 소장자 개인이 출자하고, 거기에 다른 기업 자금도 투입하는 것이다. 3. 민영기업이 출자하는 박물관이다. 4. 기업과 개

인 혹은 기업과 기업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박물관이다. 5. 개인과 기업 또는 정부가 합작해서 설립하는 박물관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한 것은 중국 각 지역에 각종의 민영박물관의 분포가 다르다. 예를 들어 북경에서는 민영박물관이 주로 첫 번째를 위주로 하며, 내몽골은 주로 다섯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영박물관로서 지속적인 자금원천은 그의 살아남을 수 있는 관건이다. 내몽골의 경우, 자금문제의 측면에서 정부는 가장 안정적인 자금 공급자이다.

21세기에 들어, 후허하오터 지역에서 설립된 민영박물관들은 내몽골 전체에서 박물관의 다양성을 강화시켰다. 국유박물관에 비해 민영박물관이 더욱 다양한 형식으로 역사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설립된 내몽골영화박물관은 내몽골자치구문화청의 비준과 내몽골자치구민정청의 등록을 받은 후 조성된 비영리기업 민영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에서 다른 시기의 영화 장치,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서적과 포스터 등을 전시함으로써, 내몽골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서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한다. 이 박물관은 2008년에 ‘애국주의 교육기저’로 선정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조성된 박물관들에 문화의 다원화를 더욱 상세하게 부여하며, 다른 민족 간의 융합과 ‘대단결’을 강조하게 되고, 또한 ‘몽원문화’라는 개념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내몽골몽박박물관’은 전형적인 정부관리-민영박물관이다. 정부가 대부분 자금과 장소를 제공하며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행동을 뒷받침하고, 기업은 다른 일부의 자금을 스스로 조달한다. 이 박물관은 ‘대조문화산업’프로젝트 중 중요한 건설사항이며, 총 1.36억위안을 투자하였다. 이 박물관은 그 지역의 청나라 역사를 기반으로 후허하오터의 역사문화와 몽원문화를 결합하여 민족융합이라는 개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 지역의 다른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성격을 강조한다.

4) 최근 몇 년간 후허하오터 박물관의 특징과 향후 후허하오터시 박물관의 발전

최근 몇 년 시진핑이 “박물관을 활성화시키자! (讓博物館活起來)”라는 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는 현재 중국의 박물관 사업은 이용율이 낮다는 보편적 난제를 직면하고 있기에, ‘잠들고 있는’ 문물을 깨우고 박물관 간 상호의 유동성을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16년 11, 국제박물관고급회의). 내몽골 문화청이 이 호소에 호응하여, <내몽골자치구 스마트박물관체계 건설항목 신청서>를 제시하고, 2016년 6월 24일에 내몽골자치구 발전과 개혁위원회가 이 보고를 비준하였다. 회사에서 시진핑의 “讓博物館活起來”라는 주장을 다시 강조하고, 과학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박물관에 스마트서비스, 스마트관리와 스마트보호를 실행한다고 지시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 7월에 실시하기 시작하여 2017년 7월까지 완료된다. 총 투자금액은 5710만원에 달했고, 주로 특정보조자금으로 지원을 받았다. 이 계획이 비준된 이래에 다른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관련된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 2017년 2월 14일에 내몽골자치구 문물구가 <2017년4개항 문물 중점 과제>에서 박물관 사업에 대한 발전 전략이 상세하게 제시된다. “자치구의 특색박물관 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내몽골혁명박물관, 거란요¹⁵⁾문화박물관, 대청산¹⁶⁾항일박물관을 설립해야한다. 이로써 전 자치구의 스마트 박물관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위에 근거하여 향후 내몽골에서 건립할 박물관은 고대역사박물관을 비해 더욱 항일전쟁시기를 전시하는 박물관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2017년 문무구 중점작업인 혁명박물관과 대청산항일박물관의 건설 계획에서 엿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박물관의 설립하는 데 예전(200년012015년)보다 투자를 감소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내몽골 각 부문의 박물관 작업을 정리하다 보면 새 박물관의 건립을 대신하여 고유의 박물관에서 하이테크놀로지화, 디지털화 그리고 스마트화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15) 907-1125 요나라, 처음에는 거란이라 하였고, 후에 요로 개칭됨

16) 大青山, 후허하오터시에 있는 산 이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박물관 이용에 대한 선전과 보급 등 작업을 집중하여 박물관의 이용율을 높일 것을 엿볼 수 있다.

2.3.2 내몽골 역사박물관의 특징

1) 전체적 특징

박물관의 특징을 밝히고자 필자는 내몽골의 모든 박물관에 대한 공식자료, 신문기사, 뉴스보도, 논문저작 등 여러 역사자료와 문헌을 수집하는 동시에, 그 중의 일부 박물관을 몸소 방문한 경험을 결합하였다. 그 결과, 내몽골 박물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내몽골 역사박물관은 “몽원문화(蒙元文化)”를 전시한다. 다시 말해서 몽원문화를 충분히 체현하는 것은 내몽골 역사박물관에서 내용물을 전시하는 중점목표이다. 여기서 말하는 몽원문화는 중국 측에서 만든 용어이고, 이는 원나라 때 몽골족 집권자가 초원에서 중원(고대 중국)으로 진입함으로써 중원문화와 유목문명이 상호 융합하여 공존하는 중국의 특별한 문화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몽원문화 이외에도, 박물관을 건립하는 전제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또 다른 세 가지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애국주의적 교육의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몽.한 민족융합, 그리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구축에 유익해야 한다. 셋째, 애국주의, 민족전통 그리고 혁명전통에 대한 교육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내몽골 역사박물관은 대체로 민족단결과 관련되는 것, 즉 민족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수민족 혹은 한족이랑 관련이 있는 내용물을 전시하는 편이다. 이러한 내용물을 통해 내몽골은 예로부터 중국의 한 부분이라는 점과 같이 내몽골이 소수민족 자치구의 길을 걸어야 할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족사람들과 몽골

족은 예로부터 평화롭게 지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몽골 소수민족들이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정신(保家衛國之精神)을 선양하거나, 항일전쟁 때 내몽골 소수민족들의 공헌을 부각시키는 내용물도 전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화민족의 다원성을 강조하는 전시물도 찾아볼 수 있다.

내몽골 역사박물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선양하는 인물이라면 칭기스칸, 쿠빌라이 그리고 우란후 세 명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후허하오터시에 있는 칭기스칸 기념관, 어얼뛰쓰시의 칭기즈칸릉(陵) 몽골역사박물관, 그리고 칭기스칸史跡玉文化紀念館 등이 있고, 쿠빌라이 및 원나라를 선양하는 원上都박물관, 우란푸에 대해 전시하는 우란후기념관 등을 많이 볼 수 있다. 역사박물관에서 주로 전시하는 시기도 마찬가지로 원나라, 요나라(遼), 금나라(金),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근대 항일 전쟁시기로 개괄할 수 있다. 일례로 ‘내몽골자치구 장군衙署박물관’에서는 청나라 정부가 서북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남북몽골에 행하는 군사적 통치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敕勒川민속박물관은 주로 명나라 시기 몽골족과 한족 사람을 함께 집거하는 모습을 전시하였다.

기억의 재현 매개체로써 내몽골 역사박물관은 역사를 재구성한 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단층/단열한 기억”¹⁷⁾, 신화나 전설의 사용, “명예훈장”을 수여하기 등 방식으로 역사를 재생산하여 전시한다. ①이른바 “단층/단열한 기억”이란 중국학자 장평이 알박스의 집합기억이론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다. “단층/단열한 기억”은 어떠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역사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어느 부분을 일부로 강조하는 작문법이다. 이는 내몽골 박물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몽골 역사박물관에서 국민당 시기의 문물을 전시하는 경우가 없고 또한 내몽골과 외몽골의 분단역사, 내몽골과 외몽골 분단 이전의 역사 그리고 내, (외)몽골 사이의 관

17) 주간글: 張朋, 政治認同與集体記憶的建构: 1932年陳獨秀被捕的輿論反應, 2016.

계를 묘사하는 (외)몽골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② 신화나 전설을 통한 방식은 소군방물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검증 가능하다. 간략히 말하면 왕소군과 관련된 전설에서 그녀는 선녀로 묘사되었고, 예로부터 한족과 흉노족 간의 평화 및 흉노의 발전에 대한 한족의 공헌을 강조한 바가 있다. 이 외에 내몽골몽박박물관(內蒙古蒙博博物館)에 대한 소개문에도 후허하오터시의 다민족문화체제를 설명하기 위해 “御馬創泉”라는 전설을 인용한 경우도 있다. ③한편“명예훈장”을 수상하는 경우는 몽골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중화문화로 동일시하며 “애국교육기지”, “선진/진보단위” 혹은 “모범기관”등으로 선정함으로써 공산당 입장에서의 집합기억을 구성한 것이다. 또한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한 ‘민족 영웅’, ‘숭고한 희생’ 그리고 ‘사회주의의 선구자’ 등 내용을 보면 박물관은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일본 학자 다카하시 테쓰야가 <국가와 희생>이라는 서적에서 언급한 야스쿠니신사와 같이, 이러한 기념관은 모두 국민정신의 명의를 숭고한 희생이라는 추앙으로 국민들의 감정/정신을 통제하는 정치적 도구다. 국가는 찬양을 통해 한 민족에게 명예훈장을 달 수도 있고, 스티그마(stigma)로 낙인과 지워지지 않은 흔적을 찍을 수도 있다.

2) 지역별 특징

2009년까지 내몽골 내 12개의 도시 모두에서 박물관이 건립되었고, 현재에는 자치구 전체에 200여 개의 박물관이 존재한다<그림1>. 그러나 내몽골의 박물관은 주로 후허하오터시(48개), 후룬베이얼시(29개), 어얼뒤쓰시(24개), 츠핑시(23개) 4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박물관의 60%에 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이 4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림 1>. 내몽골 지역별의 박물관 분포

ㄱ. 후허하오터시

후허하오터는 내몽골의 도심이고, 다른 도시에 비해 가장 많은 박물관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허하오터시의 48개 박물관들 중 역사박물관은 무려 34개에 달하고, 거의 모두 20세기 이후에 설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0년 이전에 설립된 박물관은 7개,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17개, 2010년에서 현재까지는 10개에 이른다.

내몽골 대표지역으로서 다수의 역사적 박물관이 존재하고, 청(淸)나라, 원(元)나라, 명(明)나라, 한나라의 흉노왕 시기를 비롯한 다양한 시기를 전시하고 있다. 예컨대 1957년에 건설된 ‘후허하오터시박물관’은 청나라시기에 강희(康熙)왕제가 서북 지방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화친정책을 실시한다는 역사를 보여준다. 그리고 1992년에 개방된 ‘내몽골자치구 장군관청박물관(內蒙古將軍衙署博物館)’은 청왕조가 북방 변경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몽골 지역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역사를 전시한 것이다. 이 외에 ‘내몽골원대자기 박물관(內蒙古元代瓷器博物館)’, ‘내몽골성원박물관(內蒙古盛元博物館)’, ‘개원산호박물관(開元珊瑚博物館)’ 그리고 ‘내몽골대학교 민족박물관’ 등이 모두 2000년부터 2010년 동안에 건립한 박물관이며, 주로 원나라시기의 번창한 역사를 찬양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명나라를 전시하는 역사박물관 중 ‘처러천민속박물관(敕勒川民俗博物館)’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는 1990년에 건립한 첫 민영박물관이

며, 주로 명나라 중엽이래 몽골족과 한족이 함께 거주하고 농업과 목축업을 병행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의 흉노왕 시기를 전시하는 박물관들 중 소군박물관이 가장 전형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2.4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

ㄴ. 후룬베이얼시

후허하오터시 다음으로 후룬베이얼시는 두 번째로 많은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다. 그러나 후룬베이얼시의 박물관들의 후허하오터시에 비해 그 구조와 내용이 크게 다르다. 우선 역사박물관의 비중을 보면, 총 29개 박물관 중 역사박물관이 24개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후허하오터시(7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박물관들의 건립시기는 유난히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허하오터시와 달리 50년대에 건립한 박물관은 하나도 없었으며, 90년대말에 설립된 6개 박물관을 제외한 기타 박물관은 거의 모두 00년대에 건립한 것이다.

사실상 후룬베이얼시는 내몽골의 지역이지만 중국 ‘둥삼성(길린, 랴오닝, 흑룡강)’과 같이 동북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일부 후룬베이얼시의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한 것은 동북3성과 유사하다. 이 중에는 항일 전쟁 시기 몽골군, 중국군 그리고 소련군이 함께 일본을 상대로 전투를 치르는 역사를 전시하는 역사박물관이나 유적지 박물관이 가장 많았다. 예를 들면 ‘하이라얼요새 유적박물관(海拉爾要塞遺址博物館)’이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기념공원’에 세워진 박물관이며, 항일전쟁시기에 중국인들이 완강하게 끝까지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소련군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사료와 물품도 전시하고 있다. 2004년에 설립된 ‘바얼호(巴爾虎)박물관’도 주로 내몽골 혁명시기, 항일전쟁시기 그리고 내몽골 자치정부의 성립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 외에 청나라 시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도 있는데, 1996년에 건립한 ‘예벤키(Evenki鄂溫克)박물관’은 예벤키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를 전시하는 동시에 청나라

시기에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희생한 민족 영웅을 보여줌으로써 민족간의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다. 또한 후룬베이얼시는 중국, 러시아, 몽골 삼국 접경 지역으로서 그곳의 박물관도 한편으로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은 이 삼국의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에 언급한 ‘하이라얼요새 유적박물관(海拉爾要塞遺址博物館)’에서 중국, 몽골, 러시아 삼국이 함께 파시스트를 저항하면서 마침내 승리를 거둔 역사과정을 전시하고 있다. 또 후룬베이얼시에는 몽골족 이외의 다른 소수민족도 존재하기에, 이러한 민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집거하는 지역에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민족단결을 강조하려는 지향을 엿볼 수 있다. ‘다우르민속 박물관’, ‘예벤키박물관’, ‘오르죈박물관’이 각각 다우르족, 예벤키족 그리고 오르죈족을 중심으로 건립된 박물관이다.

㉔. 어얼뉘쓰시

어얼뉘쓰시는 700년에 걸친 몽원문화를 보존하고 있고, 칭기즈칸과 가장 깊은 인연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어얼뉘쓰 지역의 사람들과 칭기즈칸의 인연은 아래와 같이 널리 전해져 있다: 어얼뉘쓰가 본격적으로 몽골족 손에 넘어간 것은 몽골제국 창시자인 칭기즈칸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다. 칭기즈칸이 처음으로 어얼뉘쓰에 도착했을 때 이곳의 뛰어난 초원 경관에 감탄하면서 “내가 죽으면 이곳에 묻으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다. 동시에 어얼뉘쓰부락의 형성, 발전이 칭기즈칸의 “황금가족”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같은 어얼뉘쓰시의 역사박물관은 주로 칭기즈칸과 원나라 시기를 중심으로 건립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칭기즈칸릉 역사박물관을 제외하고도 ‘칭기즈칸도라디아양용역사박물관(成吉思汗多蘭迪亞歷史博物館)’, ‘몽원석각예술박물관(蒙元石刻藝術博物館)’, ‘어얼뉘쓰원대자기박물관(鄂爾多斯元代瓷器博物館)’ 등이 세워졌다.

그러나 후허항터시에 비해 어얼뉘쓰시의 역사박물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총 25개 박물관 중 역사박물관이 13

개로 대략 50%정도 점하고 있다. 칭기즈칸릉을 제외하고 모두 90년대말에서 2010년에 설립된 것이고, 전시한 내용물은 후룬베이얼시에 비해 더욱 다양하다. 이는 ‘어월뒤쓰혁명역사박물관(鄂爾多斯革命歷史博物館)’과 같이 공산주의혁명의 역사를 전시함으로써 애국주의정신을 고양한 박물관, 진시황 시기를 묘사하는 ‘진직도박물관(秦直道博物館)’, 흉노왕조를 기술하는 ‘대하흉노박물관(大夏匈奴博物館)’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ㄷ. 츠핑시

츠평시에서는 총 23개 박물관이 있으며 역사박물관이 11개로 50%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 차원에서 보면, 내몽골의 모든 도시 중 츠평시가 북경이랑 가장 인접하고, 농업생산을 위주로 하고 목축업을 부업으로 삼는 경제생산방식을 보인다. 따라서 츠평시 역사박물관의 특징 중의 하나는 농경문화를 묘사하는 민속박물관을 보유한 것이다. 일례로 2013년에 비준되어 2015년에 개방한 ‘아오한 제1촌 박물관(敖漢第一村博物館)’은 주로 옛날의 농기구 등을 전시함으로써 이 지역의 민속문화와 역사문화를 전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츠평시의 역사박물관 중 요나라를 중심으로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이중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요중경박물관(遼中京博物館)’은 1988년에 요중경이라는 유적지에서 건립한 것으로, 주로 요성종시기(즉 기원1007년)에 이 지역의 번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4 왕소군박물관으로 본 정치적 재현

2.4.1 소군박물관의 개설

2005년11월2일 내몽골 자치구 정부가 공포한 <전구특색박물관체계

건설에 대한 의견> 중 특색 박물관 명단에 오른 내몽골민족박물관, 후허하오터초원말문화박물관, 和林格爾盛樂고성유적박물관 등 박물관에 대해서 다루었다. 2008년에서 2010년 까지 전 사회에 개방되는 박물관 명단에 오른 것 중 한 곳인 소군(昭君)박물관은 가장 전형적인 박물관 중의 하나다. 소군박물관은 현재 소군박물관원으로 명명되었고, 후허하오터시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건축물이 되었다. 그곳은 왕소군묘를 확장시킨 건축물이며, 80년대에 “소군분(墳)”의 이름으로 사회에 개방되었으며, 30 여 미터 높이의 무덤뿐이었다. 그 이후 “소군묘”로 명칭을 바꾸었고 규모를 확대시켰으며, 자치구 60주년 때(2007년) 소군박물관으로 개명되었다. 명칭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 규모 및 내용이 더불어 달라졌다. 2017년 내몽골 자치구 수립 70주년 현재까지 소군박물관은 거듭 확장되었다.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흉노소군문화박물관이 포함된다. 그의 건축면적은 15000㎡에 달하고 흉노시기의 역사와 왕소군이 변방으로 시집간다는 역사(昭君出塞)를 현시하고 있다. 2. 중국역대화친(和親)문화관이 설립되어있다. 총 면적이 3000㎡이고 역사상의 화친과정을 소개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3. 昭君出塞5D영화관의 건축면적은 3000㎡에 달하고 영상미디어를 활용하여 왕소군의 화친이야기를 방영할 뿐만 아니라 무대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4. 선우장막(單于大帳, 單于: 흉노족 군주의 칭호)의 건축면적은 2600㎡이고, 주로 흉노민족의 초원문화를 전시한다. 내부에는 공연용 무대장치가 설치되어 ‘昭君出塞’의 춤을 선보인다. 5. 漢室소군故里는 총 1800㎡이고, 이는 왕소군의 고향집을 재현한 건축물이다. 이상의 부분을 제외하고 仿漢代闕門、青冢牌坊、董必武題詩碑、神道古生像、和親銅像、歷代詩碑廊 등까지 포함시키면 총 건축면적은 무려 15092.62㎡에 달한다.

현재 소군박물관은 ‘전국진보단결과교육기저’로 불리우고, ‘하나의 민족단결, 다민족융합 그리고 다민족 공동발전을 상징하는 역사비석’

으로 칭송된다. 지금까지 매년 50여만명의 관광객수를 유지해왔고, 이 중에는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류원산 등을 비롯한 150여명의 국가 지도자와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도 포함된다.

소군박물관은 주로 2000여년 전의 화친(和親)역사와 소군선녀가 내려온다는 전설을 중심으로 몽골족과 한족 문화의 융합과정을 전시하고 있다. 일례로 <전구특색박물관체계건설에 대한 의견> 중 ‘왕소군이 변방으로 시집간다는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상 민족단결에 관련 미담’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저명한 역사학자인 翦伯贊도 소군박물관을 찬양한 바 있다: ‘왕소군은 단순히 하나의 인물이 아닌 민족간 우호관계의 상징이며, 소군묘도 단순히 하나의 무덤이 아닌 민족간 우정을 대표하는 기념탑이다.’

2.4.2 소군박물관과 역사문헌에서 묘사한 왕소군의 비교분석

1) 소군박물관에서 묘사한 왕소군

소군박물관의 소개문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을 통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해설을 진행한다. 하나는 ‘소군출새’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소군과 관련된 전설을 전달하는 것이다.

소군박물관은 왕소군이 변방으로 시집간다는 역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중국 4대미녀의 한 사람인 왕소군은 서한시기 郡秭歸에서 태어났고 기원전 37년에 한나라 원제의 후궁으로 들어갔다. 기원전 33년, 근 1백여년 동안의 싸움으로 인해 한족과 흉노족 인민들에게는 평화와 안정이 절실했고 이런 와중에 왕소군은 자진해서 흉노족 왕비로 시집갈 것이라고 뜻을 표했다. 그녀가 시집간 후, 한족

과 흉노족 두 민족 간의 우의를 위해 힘을 아끼지 않았고 흉노와 한나라는 반 세기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왕소군은 흉노로 갈 때 많은 선물들을 가져갔다. 그녀는 천 짜는 기술과 옷 만드는 기술, 그리고 농업기술들을 가르쳐 주어, 이로 인해 흉노족의 경제문화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왕소군은 두 민족의 인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중국 역사상 중화민족우호사업에 공헌한 위대한 여성이고 미의 화신으로 찬송되었다.

왕소군과 관련된 전설에서 그녀는 선녀로 묘사되었다. ‘수군은 본래 천상의 선녀였는데, 한족과 흉노족 간의 평화를 위하여 자원해서 인간세상에 내려오고, 선우랑 부부의 연을 맺어서 인민의 복리를 발전시켰다.’ 또한 전설 속에서 왕소군과 흉노왕은 서로 애정하고 왕소군이 흉노의 발전에 공헌하였다는 내용도 강조하고 있다. ‘왕소군은 옥황상제가 파견하여 한족과 흉노족 간의 전쟁을 평정하러 인간세상에 강림하였다. 흉노 선우가 이 소식을 접하고 특별히 사막 북쪽에서 먼 길을 온 소군을 영접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서 풍설을 무릅쓰고 다시 북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흑수(黑水, 흑룡강 지역)까지 이르렀을 때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쳐 기마대가 전진할 수 없었다. 이때 왕소군은 말에서 내려 비파(악기의 일종)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든 눈보라가 일제히 멈추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뜨고 얼어붙었던 빙설이 녹으면서 풀이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선우와 흉노 인민들은 모두 왕소군을 감사히 생각하고 애정 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왕소군이 가는 곳마다 수목이 우거져 있고 풍요로운 광경을 이루어내고 있다. 또한 왕소군은 하나의 예쁜 비단 주머니를 지니고 있는데, 어느 날 그녀가 주머니 안에서 씨앗 몇 개를 꺼내 땅에 심자 만리장성 이북 지역도 농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수년 이후 옥황상제가 그녀가 맡은 의무를 다했기에 다시 천상으로 귀환하도록 명을 내렸다. 그녀가 돌아가기 직전, 밤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엄청난 굉음도 울렸다. 다음 날 아침에 평지였던 이곳에 작은 산이 나타난 것으로 발견되

었다. 이 작은 산이 바로 오늘날의 소군분(昭君墳, 현재 소군박물관으로 확장된다)이다. 아래와 같은 소군박물관에서 세우고 있는 조각상(그림2)을 보면 왕소군의 선녀 양상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왕소군과 흉노선우의 동상(그림4)와 밀랍 인물상(그림3)으로부터 둘이 서로 아끼며 사랑한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 고문헌자료에서 묘사한 왕소군

이 부분에서는 한나라의 班固가 편찬한 <漢書>, 범엽이 엮은 <후한서>와 司馬光의 <資治通鑑>, 그리고 왕소군과 관련된 시를 통해 사지에서 묘사한 왕소군의 이미지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소군박물관으로 표현된 왕소군의 모습과 비교하였다.

‘화친정책’은 한나라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주변 나라의 침략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황제가 미혼인 공주 혹은 미녀 그리고 금전을 주변나라에게 진상함으로써 평화조약을 교환하는 전략결혼을 일컫는다. 한나라 초기부터 중국 북방지역은 지속적으로 흉노의 침범을 당했는데, 흉노의 용맹스럽고 싸움에 능한 특징으로 인해 무력에서 항상 열세에 물리게 된 한나라는¹⁸⁾ 황실의 여인을 흉노로 보내는 화친정책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한원제(漢元帝, 기원전 203- 기원전157)시기에 흉노 국내에 5명의 선우¹⁹⁾가동시에나와서로 전투하여 최후의 승리를 경쟁한다. 그 중 呼韓邪 선우가 한나라의 도움을 빌어 다른 4명의 선우를 전진하여 최후의 흉노왕이 되었다. 그 이후 흉노나라가 呼韓邪 선우의 지도하에 점점 강해지고, 한원제가 다시 흉노의 침략을 걱정되어 미녀 왕소군을 呼韓邪 선우에게 진상하였다.

현재 중국역사학계에서 왕소군이 변방으로 시집간 후 그녀의 개인적인 정서와 생활양태에 대하여 대체로 두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

18) 산서, 漢書: ‘其俗, 寬則隨畜田獵禽獸爲生業, 急則人習戰攻以侵伐, 其天性也.’

19) 5개 선우: 呼韓邪單于, 屠耆單于, 呼揭單于, 車犁單于, 烏藉單于.

다. 가장먼저 고향이 그리워 온종일 우울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이고 주로 역사문헌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에 북경사범대의 강진(康震)교수를 비롯한 학자들이 비공식적/민간의 기록들을 취합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개인적 추론을 결합한 결과, 왕소군의 행복을 강조하는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고문헌자료를 수집하여 고대중국의 왕소군과 유관된 시를 정리, 분석하고 거기에 당시의 사회배경까지 결합하여 왕소군이 시집간 이후 소극적인 양태를 보인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싶다.

<한서(원제기)>에 기록한 바와 같이, 기원전 33년 봄에 흉노 呼韓邪선우가 알현하러 한나라로 향했다. 바로 이 시기에 한원제가 그에게 왕소군을 보낼 것이라는 조서²⁰⁾를 공포하였다: 흉노 郅支선우가 도의를 저버렸기에 지금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나 呼韓邪선우는 은덕을 잊지 않고 의례를 잘 지키고 있다. 따라서 다시 알현예물을 드림으로써 전쟁이 없도록 변방의 평화와 안전을 기약한다. 이 외에 액정(掖庭 지역 이름) 왕장²¹⁾을상으로내려흉노의왕후로임명한다: <한서(흉노전)>에는 당시 선우의 정서를 이렇게 묘사하였다. ‘원제가 후궁에 있었던 양가의 딸 왕장을 선우에게 진상한다. 선우가 매우 즐거워서 변방에서 서북 둔황²²⁾까지그일대의전사를저지하고안정을보장할것을승낙하였다.’

범엽이 엮은 <후한서-남흉노열전>에서는 왕소군의 시집간 이후의 상황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녀는 아들 둘을 낳았다. 呼韓邪선우가 별세 하자 그 본처의 자식이자 다음 후계자가 될 장자가 선우의 자리를 이어 받았는데, 흉노의 혼인풍속에 따라 왕소군은 그와 부부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 왕소군이 한나라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귀국을 요청하였으나 한성제²³⁾는흉노의습속을따르라고강제로명령하였다.

20) 조서, 즉 詔書: 천자가 발포한 서명 명령이다.

21) 왕장, 즉 王穉: 왕소군의 별명이다.

22) 둔황: 현재의 간쑤성(甘肅)에 있는 한 지역 명이다.

이렇게 왕소군은 다시 후-선우의 왕후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흉노의 풍습에 관하여 <한서> 중에서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 시집가고, 형이 죽은 뒤 동생이 형을 대신해 형수와 부부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이다.²⁴⁾

<資治通鑒>에 따라 왕소군이 復株累선우에 재가를 하여 딸 둘을 더 낳았다. 復株累선우와 11년동안 함께 생활하다가 기원전 15년에 죽음에 이르렀다. 왕소군의 화친 덕분에 한나라와 흉노는 반세기 동안의 평화를 얻었고 왕소군이 중국역사상은 물론 현재까지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왕소군에 대한 평가는 점점 그녀의 고충을 외면하고 그 대신 행복과 사랑이야기로 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문헌과 역대 문인들의 평가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당대 저명한 시인 이백은 <왕소군>이라는 시에서 ‘명비서가무래일, 아미초채물호사’라고 왕소군을 묘사하였다. 그는 왕소군이 시집간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고충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비통에 빠져서 초채해진 그녀의 용모도 묘사하였다. 당대의 또 다른 저명한 시인인 두보도 <영회고적>에서 왕소군을 ‘독류청충향황혼, 분명원학곡중론’라는 시를 통해 그녀의 외로움과 비분을 기술하였다. 또 한 명의 유명한 시인인 백거이도 그의 <왕소군>속에서 소군을 ‘수고신근초채진, 황금하일속아미’로 형용하여 그녀의 마음고생으로 인해 괴로운 얼굴을 부각시키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왕소군 자신도 스스로 <원사>²⁵⁾를 지어 부모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자기의 불행을 표현한 바 있다.

23) 漢成帝, 환원제가 죽은 후 한성제가 왕위를 계승하나다.

24) 漢書 94上 匈奴傳第64上 “父死, 妻其後母; 兄弟死, 皆取其妻妻之。”

25) 父兮母兮, 進阻且長, 嗚呼哀哉! 憂心惻傷。



<그림 2> 왕소군의 선녀 조각상



<그림 3> 왕소군 밀랍인물상



<그림 4> 왕소군 동상

2.5 내몽골 역사박물관의 실제 통합효과 및 검토

이 부분은 필자가 현지조사과정에서 일부 관광객들의 행위반응을 관찰하고 나아가 그들과의 간단한 대화를 통하여 내몽골지역에서 역사박물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몽골족에 대한 실제 통합효과를 고찰하였다. 다시 말해서 역사박물관에서 재구성한 역사는 몽골족 시민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지, 받아들인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곁들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리한 결과, 대부분은 중립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고 박물관에서 전시한 역사를 선택적으로 믿고 있었다. 이는 약 절반 가량의 사람들이 부분적인 역사의 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의견은 내몽골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한 역사에 대해 굳은 믿음을 표하고 내몽골은 예로부터 중국의 일부로서 그 소수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박물관에서 전시한 내용에 대하여 완전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구성한 역사를 배척하는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

물론 선정된 대상자들과의 대화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하였기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또한 대상자의 대표성을 고려했을 때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표출한 ‘소리없는 언어’는 어찌 보면 통합수단에 의해 야기된 각종 정서적 갈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 일부 관광객들이 직접적으로 박물관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게 진짜로 우리 몽골의 역사를 전시하는 거야?
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하나도 없냐?’ (소군박물관을 관람하는 한 관광객)

‘다시 올 필요가 없어! 분명히 진짜 몽골 역사를 보여주
는 것이 아니잖아.’ (후허하오터 박물관의 관광객)

다른 한편, 일부 몽골족 사람들의 경우 역사박물관의 실제 통합효과
를 구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래의 의견을 통
해 엿볼 수 있다.

‘민족이란 개념은 미시적인 층면에서 볼 수도 있고, 거
시적인 층면에서 볼 수도 있죠. 제가 거시적인 민족 개
념을 찬성하는 쪽을 선호하는데요… 그것은 평화와 안
정에 도움이 될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박물관에서 보
여준 건 바로 거시적 민족 개념인거죠.’ (소군박물관을
관람한 한 대학교수)

‘제가 솔직히 민족이란 민감한 화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요. 몽골족 것인지 한족 것인지 제가 관심이 없
어요… 오늘의 민족 정책덕분에 내몽골 지역이 잘 발전
하고 있고 우리도 안정하게 살고 있잖아요. 민족 개념
을 다시 토론할 필요가 있겠어요?’ (후허하오터 박물관
의 한 관광객)

역사박물관에 대한 평가에서 약 절반수의 중립입장을 표하는 사람
들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일부 역사의 진실성을 질의한 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군
박물관에서 묘사한 왕소군은 역사상 흉노왕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
었는지, 흉노박물관에서 선양하는 화친정책이 정말로 그 필요성이
있는지, 우란후가 진정한 민족영웅으로 찬송해도 타당한지 등 문제

에 대해서 일부 관광객들은 불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몽골 역사를 전시하는 박물관을 참관한 사람들 중 참관 이후 몽골역사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명확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반응도 있었다: ‘대체 내몽골, 외몽골은 언제 어떻게 분단된 거예요?’, ‘이 박물관의 맥락을 보면 외몽골도 본래부터 중국의 영도인 것인가요?’, 그리고 ‘왜 장개석(蔣介石) 시기를 전시하는 내용이 없나요?’ 등 질의의 소리를 들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보면 시민들이 이러한 재구성한 역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그대로 접수하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불만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역사박물관을 이용해 민족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칭기즈칸릉으로 본 민족통합

칭기즈칸릉(Чингис хааны онгон, 영어 : Mausoleum of Genghis Khan)제사는 내몽골 몽골족 제사의식 중 가장 성대하고 장중한 제사다. 몽골족 사람들에게 칭기즈칸릉은 하나의 성지로서 몽골 사람들의 마음에 신성한 신앙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칭기즈칸이 밀장(비밀로 매장한다)을 했기 때문에 칭기즈칸릉은 칭기즈칸이 실제로 매장된 곳은 아니다. 단지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이 부분에서 칭기즈칸릉의 역사적 유래를 설명하고, 그의 역사상의 세 번의 대천이를 설명함으로써 칭기즈칸릉을 점유여부가 내몽골을 통합여부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3.1 칭기즈칸릉의 역사적 유래

칭기즈칸의 매장지에 대한 의론이 역사기록에서도 분분하다. 1240년에 나온 <원조비사>, <흑달사력>, 원나라 말의 <남춘철경로>, 1370년에 작성된<원사> 그리고 17세기의 <몽골황금사강> 등 사서에서 모두 칭기즈칸의 서세를 기재하였지만 매장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그 이후 많은 서적에서 칭기즈칸의 매장지에 대해 추측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청나라의 <몽골유목기>, 페르시아 역사학자 Juvaini의 <세계정복사(History of the World Conquer)>,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가 쓴<동방견문록> 등 서적에서 적자 갖가지의 역측들을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중국고대사적>의 관점을 가장 유행하고 있다. “칭기즈칸이 자신의 병이 위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리하여 그는 죽음에 이르러 시중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은 후 조곡도 하지 말고 부고도 내지 마... 적들이 나의 죽음을 알 수 없게 해라.’ ” 당시 칭기즈칸이 서하를 공격하는 길에 있기에 이 도중에 밀장된다고 주장한다.

칭기즈칸릉의 원형은 ‘팔백실’이다. 칭기즈칸이 죽은 후 그의 넷째 아들은 칭기즈칸이 원래 살던 궁전 주변에 하얀 막을 건설함으로써 칭기즈칸 제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팔백실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하얀 막은 8개의 장막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팔백실 안에 칭기즈칸의 영구, 초상화와 유물이 놓여 있다. 팔백실이 완공되고 나서 칭기즈칸의 대장군 박알인이 수호자로서 팔백실을 지키게 되었고 몽골족 민중들도 제사하러 잇달아 찾아오게 되었다. 이로부터 팔백실은 칭기즈칸의 영혼을 상징하는 성지로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기원전 1260년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가 원나라를 건립하고, 정치의 중심이 카라코룸(현재의 몽골 중부)에서 중도(현재의 북경)로 천이함에 따라 팔백실을 다시 증설하였다. 쿠빌라이가 카라코룸, 상도(현재의 시린하오터시), 중도에서 각각 상기와 동일한 팔백실을 건립하였다. 이로부터 칭기즈칸 팔백실은 3 곳에서 모두 완공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칭기즈칸팔백궁’으로 개명되었다.

명나라 시기에 몽골사람들이 중도에서의 통치를 잃으면서 정치 중심이 다시 북쪽으로 옮겼다. 상도의 함락에 따라 상도와 중도의 팔백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당시 몽골 정권하의 어얼뒤쓰 수령이 어얼뒤쓰지역에서 다시 팔백실을 건설하였다.

청나라 때 몽골의 남부의 대부분 지역이 함락되어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청나라 정부가 정치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얼뒤쓰 지역에 있는 팔백실을 높이 평가 하면서 이를 보호하였다. 이어서 팔백실이 어얼뒤쓰에 의해 보존되어 왔다.

청나라 말기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전도사들이 내몽골 어얼뒤쓰에 와서 팔백실을 고찰하였고, 팔백실을 ‘칭기즈칸릉’으로 번역하였다. 이로부터 칭기즈칸릉이라는 호칭이 팔백실과 팔백궁을 대체하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림 5> 원나라에서 청나라까지의 칭기즈칸릉 천이

3.2 칭기즈칸릉 “세 차례의 대천이”에 대해 역사적인 고찰

몽골의 대부분 남부 지역이 청나라의 지배를 받은 후에도 칭기즈칸릉이 그대로 보존되었는데, 1931년 만주사변(9·18사변)이 발발하자 칭기즈칸릉이 서쪽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칭기즈칸릉은 총 ‘세 번의 대천이(三次大遷移)’를 경험했는데 이 세 차례의 천이 모두 서로 다른 정당과 당파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1939년의 천이는 일본정부 침략 때문에 국민당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고, 1949년에는 국민당馬步芳부대가 공산당 군에서 도망했을 때 실행한 천이였고, 1954년에는 공산당 집권초기에 주도하여 진행한 것이다.

1). 제1차의 천이-1939년 국민당 주도 하의 천이

1931년 9·18사변이 발발한 후의 몇 달간 일본전부는 중국동북 지역(흑룡강, 길림성, 랴오닝성)을 점령하면서 중국 기타 지역으로 침략을 감행하여 이 시기 내몽골의 일부 지역도 일본군에게 점령되었다. 1932년 일본군이 내몽골의 동북지역에서 행정 기관을 수립하며 내몽골 서부 지역으로 침략하는 걸음을 다그치고, 내몽골의 왕궁 귀인들에게 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당시 몽골족 정권이 두 파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일본 정권하의 덕왕파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당 정권하의 사왕파이다.

7·7사변(1937년 7월 7일)이후, 내몽골 일부의 서부지역도 침략을 당하게 되어 국민당 군대가 어얼뒤쓰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덕왕이 어얼뒤쓰의 왕궁 귀인들을 소집하여 ‘몽골영웅연합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몽골연맹자치정부를 수립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칭기즈칸릉을 일본 정권하의 귀수(歸綏, 현재의 후허하오터시)로 이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왕이 칭기즈칸릉을 천이해야 할 심각성을 알아차리면서 국민당 정부에게 칭기즈칸릉 천이 원서를 제출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일본정부와 덕왕이 칭기즈칸릉을 점령하여 이를 계기로 몽골족들을 소집할 것이 우려되어 금방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서 칭기즈칸릉 천이와 관련된 방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지점, 노선, 천이전의 제사, 호송방법, 길을 따라 제사의식, 경비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원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부록참조)

칭기즈칸릉을 이전하는 도중에 12가지의 구호와 표어를 내걸었다: 칭기즈칸은 민족 영웅이다! 칭기즈칸을 기념할 때 단결해야 한다! 칭기즈칸을 기념할 때 병역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칭기즈칸을 기념할 때 최고를 복종해야 한다! 칭기즈칸을 기념할 때 한간을 제거해야 한다! 칭기즈칸을 기념할 때 함락된 영토를 수복해야 한다! 칭기

즈칸을 기념할 때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를 뒤엎다! 산민주의²⁶⁾ 만세! 중국 국민당 만세! 중화민국만세! 구호는 한 정당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 이를 통해 당시 국민당의 정치적 목표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천이는 무려 한 달 동안 진행되어 마침내 국민당 정권하의 간쑤성으로 이전되었다. 이번의 천이 덕분에 당시의 ‘초원폭풍(위기)’를 모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헌자료에 따라 당시 일부의 몽골족들이 이번 천이를 동의하지는 않았고, 덕왕의 지지 하에 천이를 끝까지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민당이 이 동당을 평정하며 이번 천이를 통해 많은 몽골족들의 민심을 얻게 되었고, 덕왕의 민족독립운동의 계획도 이렇게 무산되었다.

2). 제2차 천이-1949년 국민당馬步芳부대 주도 하의 천이

1949년 중국 내전이 끝나갈 무렵, 중국공산당이 승산을 거머쥐게 되면서 중국 대부분 지역이 공산당 정권 하에 있었다. 7월 16일, 대부분의 군민당은 대만으로 후퇴하였지만 馬步芳이 이끄는 군대는 여전히 중국 서북지역을 주둔하여 진지를 지키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馬步芳은 군대를 이끌고 칭기즈칸릉을 당시 국민당의 서북 주둔 중심인 칭하이성으로 이전하였다. 8월 14일 馬步芳이 지시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8월 15일에 천이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번의 천이는 칭기즈칸릉을 칭하이성의 탑이사로 이전하였다.

천이 기간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화(통신)사가 글을 발표하여 馬步芳의 행위를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靑馬匪幫폭행으로 칭기즈칸릉을 갈취해서 서북인민의 분노를 초래하였다>라는 제목에서도 馬步芳을 토비라고 칭하고 그의 행위를 폭행이라고 여기는 것으

26) 三民主義: 손중산이 제창한 민생주의, 민주주의, 민권주의

로 보아, 칭기즈칸릉은 두 정권 투쟁의 강력한 무기로 중요히 여겨지고 있었다.

3). 제3차 천이-1954년 공산당 주도 하의 천이

1949년 8월 26일 공산당이 간쑤성에 진입하여, 9월 5일에 칭하이성을 점유하게 되었다. 10월 1일에 신 중국의 건립을 계기로 공산당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1953년 12월, 중국공산당은 칭기즈칸릉을 다시 어얼뒤쓰로 옮겨온다는 결정을 내렸다.

1953년 12월 11일 수원(綏遠, 현재의 후허하어터시)성 인민정부 민족사무 위원회가 주석사무실에게 칭기즈칸릉 천이에 대한 전보를 보냈다. “저의가 몽골족 인민들의 소원에 따라 1954년 음력 3월 21일 이전에 칭기즈칸릉을 칭하이성에서 어얼뒤쓰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칭릉 천이와 건설 위원회’를 시급히 조직해야 합니다...”

12월 15일 ‘칭릉 천이와 건설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54년 3월 15일에 칭기즈칸릉 대표단이 정식으로 출발하여 28일을 걸려 마침내 칭기즈칸릉을 어얼뒤쓰로 설치하였다. 그 이후 중앙인민정부가 돈을 지급하여 칭기즈칸릉을 재구축하기 시작하여 1955년에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성대한 축제를 거행하였다. 이는 몽골족들의 민심을 크게 얻은 것으로 짐작한다.

3.3 칭기즈칸릉과 제사의 현재 상황에 대한 고찰

1954년에서 현재까지 60년 넘는 동안 중국 정부가 총 열 번이나 거액의 자금으로 칭기즈칸릉을 수축하였다. 1977년 내몽골 자치구 성립 30 주년의 계기로 문화대혁명 때문에 훼손된 칭릉을 수선하였고, 1981년 내몽골자치구 정부가 30만 위안을 지원하여 칭기즈칸릉의 지붕을 새로 바꿨다. 자치구 성립 40 주년의 기념일을 위해 1986년

에서 1987년까지 대규모의 수축과 확대를 하였다. 총 359만 위안을 투입하였다. 이를 제외하고 1990년에 50만위안을 지급하고, 1996년에 365만 위안을 지급한 1999년 다시 150만 위안을 지원하였다. 2004년 2억 위안을 제공하여 칭룽에서 대량의 여행시설을 설치되었고, 2007년 5000위안을 투입하여 칭룽의 녹화를 집중하였다.

2016년 3월에 제사한 지인들의 묘사에 따라 칭기즈칸룽 안에 작은 룽들을 증축하고 칭기즈칸 동상도 몇 개를 더 증가하였다. 안에 제사의식을 제외하고 나담 페이²⁷⁾와 민족패션쇼 등도 칭룽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제사의식 참석해 온 사람의 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 칭기즈칸룽 박물관의 공식사이트에 따라 2015년 상반기에 무료입장자가 아닌(즉 몽골족이 아닌 관광객) 인원수가 35'687에 달했고 무료입장자(몽골족)의 인원수는 1'110이다. 무료입장자가 아닌 인원수는 3.31%로 증가하였다. 몽골몽골족 제사인원수보다 관광객 수가 30배로 더 많고 몽골족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의 원인과 몽골족 사람들의 제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0명의 몽골족들에게 침층 면접을 하였다.

필자가 2017년 6월에서 9월까지 몽골족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몽골어도 못하고 관광의 목적으로 제사의식을 참석하는 형식적인 몽골족들도 있다는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몽골어에 능통할 뿐 아니라 내몽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몽골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제사참여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면접과정은 주로 의도적 표집방법과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면접대상자들을 모집하고자 한다. 몽골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면접자를 소개받았고 면접섭취과정에서 연구자는 대상

27) 내몽골 몽골족의 전통 군중 집회로, 씨름·말달리기·활쏘기·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됨

자들과 직접 만나면접희망 의사를 밝힌 뒤,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의문사항에 명확하게 답한 후 “연구참여자용 동의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참여동의를 받았다. 연구참여자는 면접섭외 단계, 면접시작 후, 면접 종료 후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동의과정에 강제성이 없도록 하였다. 면접은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칭기즈칸릉 제사의식 참여하는 횟수, 이유 그리고 외부자의 참여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면접대상자의 허락 하에 녹음을 진행하였고 그것을 녹취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우선 면접결과(녹취록)를 텍스트를 옮기고 이를 원자료로 하여 원자료에 대한 반복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비교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채록된 텍스트는 사회과학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해석방법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이는 구술 연구가 단순한 구술 채록 및 인용에 머물지 않고 본격적인 텍스트의 해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법으로 제기된 방법론으로 텍스트의 언어적 요소들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동일한 혹은 유사한 사건을 해석하는 상이한 입장이 기록될 경우, 다양한 견해를 모두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사내용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표 4>과 같다.

구분	지역	신분/직업	연령	칭릉제사 회수	외부인의 참석에 대한 태도
사례1	아라산맹(좌기)	직장인	28	0 (대신 다른 제사의식 참석)	가도 된다. 그러나 제사 의례를 잘 지켜야 한다.
사례2	아라산맹(좌기)	직장인	45	0 (대신 다른 제사의식 참석)	상관없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사례3	싱안맹	대학생	22	0(대신 다른 제사의식 참)	참석 가능. 그러나 미리 직원님과 연락하고 질서 있게 참

				석)	석 바람.
사례4	시 린 하 오 터 시	공무원	25	1	많이 참석해도 가능. 다만 현 장의 환경위생을 보호하고 습속을 존중해야
사례5	후 허 하 오 터 시	대학생	23	많이 가봤다	그냥 그렇다. 엄숙한 제사에는 적은 참석 바람
사례6	후 허 하 오 터 시	대학 (부)교수	41	3	적극 환영
사례7	츠 평 시	한국유학 생	30	1	제사의 본질이 달라져서 가 도 된다.
사례8	어 얼 뒤 쓰 시	칭기즈칸 릉 근무자	43	근 무 자 로 서 들 참석한다	문화의 계승과 보급의 구현 이라 환영한다.
사례9	어 얼 뒤 쓰 시	퇴직 노 인	71	매년 한번씩	예전과 같은 제사를 그리워 한다.
사 레 10	어 얼 뒤 쓰 시	퇴직 노 인	76	자주 간다	외부자 참여에 대해 부정적 인 태도를 가진다.

<표 4> 심층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정리하면 10명의 인터뷰 대상자들 중 칭기즈칸릉에 많이 가 본 사람이 4명만 있고, 그 중의 3명은 어월뒤쓰지역의 현지인이다. 남은 6명 인터뷰 대상자들 중 3명은 세 번 혹은 세 번 이하만 참여해 봤는데, 다른 세 명은 한번도 가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민족심리측면에서 바라보면, 몽골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성지로서의 칭기즈칸릉은 몽골 사람들의 마음에 신성한 신앙으로 남아있어서 마땅히 몽골족 사람들이 해마다 여기에서 제사활동을 행해야 되는데, 왜 이와 같은 적은 참여를 보이고 있을까?

3.3.1 몽골족 칭릉제사에 적은 참여의 요인 분석

1). 지역별 차이와 칭릉제사 횟수의 관계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칭기즈칸릉 제사 횟수의 차이는 어월뒤쓰

시까지의 거리와 상관이 있다. 내몽골은 총면적 118.3만km²로 매우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내몽골의 시와 맹²⁸⁾은 각각내몽골의 서부, 중부, 동부에 분포되어 각 지역의 차이가 크고 서로 왕래하기가 어렵다. 면접참여자들 중 칭기즈칸릉에 가본 적이 없거나 많이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원인을 주로 먼 거리에 두었다. 칭기즈칸릉은 내몽골의 중부 지역인 어얼뒤쓰시에 자리잡고 있다. 먼 서부지역(예: 아라산맹)이나 동부지역(예: 시린하오터시, 신앙맹 등)의 사람들에게 비해 어얼뒤쓰시와 가까운 후허하오터시의 몽골족들이 더욱 많은 참여를 보였다. 어얼뒤쓰시의 몽골족은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가장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가 본 적이 없어요. 어얼뒤쓰에 있는 친구들은 오라고 불렀는데 집이 너무 멀어서 못 갔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도 다른 제사 의식이 있어서 매년 가족들과 예외 없이 지내는데…”(사례1)

“저는 한 번만 갔어요. 마땅히 가야 되는데 집이 너무 멀어요…… 대학시절 반 친구들이 조직해서 같이 갔어요.”(사례4)

“많이 가 봤죠. (한숨을 쉬고) 근데 최근 몇 년간은 바빠서 못 가서 아쉽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에는 꼭 가야 돼요”(사례5)

“저는 매년 상관없이 오는데…… 아들과 손자손녀들 데리고…”(사례9)

2). 지역별 제사의식의 다양성

28) 시(市)와 같은 구획 단위다

몽골족 사람들의 칭기즈칸릉 제사 방식은 다양하다. 우선 그들은 칭기즈칸릉이 신성하고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긴 하지만, 칭기즈칸릉 제사 의식은 각자 다른 현지의 제사 방식으로 하여도 자신들의 정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예를 들어 아오바오²⁹⁾ 제사, 제천³⁰⁾, 호수 제사, 하천 제사, 화신 제사, 불조 제사 등 서로 다른 제사 방식을 각 지역적 차이에 따라 선택하여 지내고 있다. 그 중 아오바오 제사가 가장 보편적인 제사 의식이다.

“저희 집에서는 매년 아오바오 제사를 해요. 마음 정성이 있으면 어디든 제사도 같은 거예요”(사례3)

“저희는 매년 봄에 고향 현지에 있는 절에 가서 제사를 해요. 몽골족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독경도 하고……”(사례4)

3). 어얼뒤쓰 몽골족 제사의식의 특수성

어얼뒤쓰 몽골족들에게 칭기즈칸릉 제사는 매해 한번도 빼놓지 않고 해야 하는 큰 일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연원이 있다. 예전의 어얼뒤쓰 부락은 칭기즈칸 궁정을 수호하고 궁정의 사무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어얼뒤쓰 몽골족들은 자신을 칭기즈칸릉 제사문화의 계승자로 여기고 어얼뒤쓰 부락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얼뒤쓰의 모든 몽골남자들이 伊金桑³¹⁾라는 경문을 숙지하는데, 이는 내몽골 다른 지역의 몽골족과는 다른 점이다.

“현재 어얼뒤쓰에서는 칭기즈칸릉의 수호자들로 노인

29) 흙·돌·풀 등으로 쌓아 올려 경계나 이정표로 삼은 무더기. 옛날에는 그 곳에 신령이 깃든다고 믿고 제사를 올렸음.

30)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다

31) 칭기즈칸릉 제사할 시의 특별한 경문이다.

집단도 있고 중년집단도 있으며, 이 외에 많은 어린이들도 伊金桑를 낭독할 수 있다. 이는 대를 잇는 사명이다.”(사례9)

4). 몽골족 젊은 층의 의식 변화

오늘날 몽골족 젊은이들은 현대화의 압축적 발전 속에서 줄어든 여가시간이나 엄청난 강도의 경쟁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제사의식을 참석 못할 수도 있지만, 현재 내몽골 지역에 있는 일부 몽골족 젊은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자기 민족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이 많이 변화되었다. 이것이 몽골족 젊은이들의 칭릉제사에의 낮은 참여도의 다른 요인이다. 이는 그들이 몽골어 배우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언어는 집합사상의 선결조건이며 언어가 없는 기억은 존재할 수 없다(알박스, 1923). 그러나 40대 이전의 몽골족들은 더욱 큰 무대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몽골어보다 중국어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어를 제외하고도 영어, 일어, 한국어 등 대중화된 외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몽골어에 대한 관심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50년 이후에는 몽골어를 완전하게 사용하는 몽골족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사례6) 몽골족인 어느 대학교수의 이야기다.

“우리 딸은 몽골어를 특별히 배우지 않았어요. 저만 해도 몽골어에 능통하지만 대학에서 수업할 때는 중국어로만 해요…… 오히려 영어를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사례6)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족 학교에 다녔어요. 부모님께서 몽골어를 하시지만, 저도 꼭 몽골어를 잘 해야 한다고 요구하시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동

부(시린하오터시, 츠핑시 등)의 몽골족들이 몽골어를 더 잘 할 것 같아요.”(사례3)

오늘날 일부 몽골족 젊은이들은 고유의 전통 문화권을 벗어나 한족 문화권에서 자기를 계발하며 발전시킨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언어의 변화에 따라, 사고방식과 정체성에서도 몽골족 특색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민족 의식과 활동에서도 적극 참여의 가능성은 적어지리라 예상된다.

5). 여행지로서 개발에 따라 제사인원수의 감소

2004년에 들어 칭기즈칸릉을 전국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시작한 후 중국 다'1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수는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몽골족들의 참여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화적인 자원을 소비시장의 상품으로 전화시킬 때 수반되는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소비는 사람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과 자본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2015, NING Quanrong)

“저는 예전에 매년마다 오는데, 최근 몇 년에 외부인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사도 제대로 못해요, 최근에 갈 때마다 실망했어요...왜 오는지 모르겠어요.”(사례9)

“칭기즈칸릉 제사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모두 제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풍습도 잘 모르고...”(사례10)

3.3.2 몽골족들이 칭기즈칸릉 외부자 참여에 대한 인식

총 10명의 면접참여자 중 2명이 칭기즈칸릉 외부자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학 교수이고, 그는 칭기즈칸을 전 세계의 것이라 보는 입장에서 대답하였다. 다른 하나는 칭기즈칸릉에서 일하는 직원이며 어얼뒤쓰 부락의 입장에서 평가를 내렸다.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옛날의 몽골제국은 세계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였잖아요. 따라서 칭기즈칸은 몽골족만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을 몽골사람의 후예로 생각해서 칭기즈칸릉에 오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문화적인 의식이 상업화되어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지만, 저는 역시 적극 참여를 환영해요. 문화의 생명력은 수용성과 개방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사례6)

“저희 어얼뒤쓰 부락은 칭기즈칸릉 제사문화를 계승하는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수호 하에 칭릉제사문화가 전승된 지 800여년이 되었어요. 외부인이 적극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칭기즈칸릉 제사문화가 보급되었다는 것을 말하죠.”(사례8)

대다수의 면접참여자들(50%)이 ‘가도 되지만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외부인의 적극참여는 그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문화의 번영과 발전에도 좋다고 한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칭기즈칸에 대해서 언급할 때 민족적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인터뷰 대상자들은 외부자

적극 참여의 원인이 훌륭한 몽골족 문화에 대한 숭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내몽골에서 살고 있는 일부 한족 혹은 기타 민족들이 몽골족 문화에 동화된 경우도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 2의 응답에서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면접자들은 외부인의 많은 참여에 따라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제사의식을 모르기에 조성된 방해와 환경파괴 등 문제다.

“가도 돼요. 근데 제사의례를 미리 알아보고 질서 있게 참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사례1)

“상관없어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부 한족사람들이 몽골족의 영향을 받아 풍습도 저희 몽골족 사람이랑 비슷해요… 매일 몽골음식도 먹고 아침에 몽골밀크티도 마시는 것처럼 제사의식도 따라서 했나 봐요.”(사례2)

“외부인들도 참석 가능해요. 그러나 같이 갈 사람이 많으면 미리 칭기즈칸릉 직원님에게 연락하고 질서 있게 참석하는 것을 바래요.”(사례3)

“많이 참석해도 괜찮아요. 다만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시설을 훼손시키지도 말고요. 그리고 로컬 물과 관습에도 따랐으면 해요.” (사례4)

“최근 몇 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프라이드가 있게) 칭기즈칸이 원래 위대한 사람이라 소문을 찾아서 오겠죠…근대 제사하는 장소인데 왜 칭기즈칸릉에서 패션쇼가 열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사례7)

그 이외의 세 참석자는 외부인의 참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우선 관광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본래의 제사 목적과는 충돌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 참여자들이 제사의식과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들의 습관을 몰라보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보편적으로 환경보호의식이 낮아서 청릉의 환경이나 시설을 파괴한 경우가 있다.

“(한숨을 쉬고) 일종의 문화교류 방식이지만 칭기즈칸릉 제사는 매우 존엄한 의식인데 다른 민족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까요? 관광객들이 관광지로 여기고 가볍게 오잖아요. 그러나 제사하는 날이 기쁜 날이 아니죠.” (사례5)

“저는 매년 상관없이 아들과 손자손녀들 데리고 오는데 최근 몇 년 외부인이 너무 많아서 제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희가 조용히 제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웃거나 시끄럽게 말하는 건 폐를 끼친 것이 같아요…그리고 옆에 계속 사진을 찍는 것도 불편해요. 예전처럼 방해가 없이 제사했으면 좋겠어요.”(사례9)

“저는 싫어해요. 왜 와서 귀찮게 구는 거냐? 그들 때문에 쓰레기도 많고 청릉제사도 변질되었잖아요.”(사례10)

정리하면 10명의 인터뷰 대상자들 중 외부자가 칭기즈칸릉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비중은 20%를 차지하며, 부정적인 인식은 30%이고, 나머지 50%는 중립입장에서 양면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외부자 참여의 문제점도 인지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따를 것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서, 칭기즈칸릉이 내몽골 지역의 민족들을 통합하는 하드 매체로서 국가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지만, 과도한 개발과 융합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요소도 생겼다. 이 상황을 보면 과연 칭기즈칸릉을 이용해 민족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결론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내몽골 역사박물관의 형성과정과 건립특징을 분석초점으로 다민족 국가가 민족지역에 대한 민족체제와 정치적인 지향을 규명하였다. 내몽골 전체 역사박물관을 정리한 결과, 20세기 90년대 말을 시점으로 내몽골 박물관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90년대 말 이전에 건립한 박물관은 10%에 불과했고, 이중 대다수는 1950년대의 ‘내몽골 자치구 성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설한 것이다. 이에 반해 60-70년대에 새로 건립한 박물관은 하나도 없는데, 그 원인은 1966년부터 시작하여 10년동안 지속된 ‘문화대혁명’과 무관치 않다. 그러다 90년대 말 이후부터 내몽골의 박물관 사업은 쾌속발전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특히 2000~2010년 사이에 내몽골의 박물관 수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박물관 사업을 발전하기 위해 국가정부, 내몽골 정부 그리고 내몽골의 각 지방정부가 일제히 동원되어 박물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2005년에 국가문무재청에서 박물관의 보급 및 중소형박물관의 발전을 목표로 <현급박물관 제고공정(縣級博物館展示服務提升工程)>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년 11월 2일 내몽골 자치구 정부에서는 <전구특색박물관 체계건설에 대한 의견(關於全區特色博物館體系建設意見)>을 반포하였고, 2006년 1월 1일에는 <박물관 관리조치>를 실시하고, 뒤이은 2008년 1월 달에는 <전국박물관, 기념관의 무료개방고지>정책을 전국적으로 실행하였다. 2015년 2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박물관조례>³²⁾의 발표를 계기로 내몽골의 박물관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32) 박물관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제출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례다. 이 조례는 총 6장, 47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칙, 건립, 관리, 서비스, 법률 등 방면에서 박물관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강조하였다.

박물관의 전시내용을 살펴보면, 90년대말 이후에 건립한 박물관은 90년대에 반해, 몽원문화, 민족단결, 몽·한 민족융합 그리고 사회주의의 필연성 등에 편중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상기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다시금 입증될 수 있다: 박물관은 단순한 문화적 건물뿐이 아니라 민족간의 역사적 연원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나아가 그것을 재생산하는 공간적 장소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박물관의 다민족 간의 연원과 기억을 재현하는 특징을 발휘하고자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거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소수민족 지역에서 대부분의 역사박물관은 국가의 의지와 기획을 수반하는 국가프로젝트에 의해 설립되며, 일단 개설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하드’한 일면과 ‘느린’매체의 특징을 지니게 되어 전시를 통해 국민들의 민족기억, 특히 소속민족 국민들의 기억을 규질화함으로써 올바른과 틀림을 판단하는 기준장치로 활용된다.³³⁾ 현재까지 중국학계의 역사박물관 관련 연구들을 바라보면,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 “기억을 재구성하는 장”의 인식을 바탕으로 다민족 국가의 민족체제를 분석한 연구는 제로에 가깝다. 여기서 이 연구가 지니는 현실적 의의를 기대해볼 수 있다. 더불어 이 분석결과는 다민족 국가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현재 동아시아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연구를 통해 과도한 통합·융합은 일부 부정적인 요인을 양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심층면접결과에 따르면 민족간 본래의 차이를 등한시하고 이에 대해 과도한 통합을 감행하면 정서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민족간의 평화에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박물관을 이용해 민족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품고 있다. 다

33) 정근식 <중국의 한국전쟁 기억과 기념: 항미원조기념관을 중심으로> 논문의 일부 관점을 참조하여 인용했다.

시 말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 기억의 장치를 구축하는 것보다, 범아시아의 시각에서 평화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연구검토작업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연구시각과 담론을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몽골의 시각을 포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한편으로 필자가 몽골어 수준이 미달한 원인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필자가 사용하는 전통몽골어³⁴⁾와 현재(외)몽골 사람이 사용하는 신몽골어³⁵⁾와 완전히 상이하기에, 몽골 측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필자가 몽골어 실력의 증진과 함께 한, 중, 몽 삼국의 시각과 논쟁을 보완할 것이다. 또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몸소 몽골에 가서 몽골의 박물관과 칭기즈칸릉을 방문할 필요성을 감지하였다. 향후 연구는 내몽골과 외몽골의 박물관을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정당의 정치적 지향을 분석할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이 외에 필자는 왕소군박물관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왕소군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흥미롭게 여기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간략히 말하면 각종 문헌자료들에서 왕소군에 대한 평가, 정의 그리고 묘사방식 등이 시기별로 다르게 표현된다. 또한 중국뿐 아니라 한국, 미국 그리고 유럽 등 국가에도 왕소군에 대한 기술과 서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로 정도가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여건이 따라준다면 왕소군과 관련한 다양한 국가의 논문서적, 역사문헌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상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4) 내몽골의 몽골사람이 사용함, 새로로 쓰는 전통 몽골어

35) (외)몽골의 몽골사람이 사용함 (新蒙文), 가로로 쓰는 신몽골어

<참고문헌>

국내문헌

- 기드보르 지음, 유재홍 옮김(2014). 스펙타클의 사회. 울력.
- 김선호(2014). 내몽골, 외몽골-20세기 분단의 몽골역사. P11-35.
- 김재기(2014). 삼몽통일론과 중국의 북방공정에 관한 연구. 논문.
- 다카하시 테쓰야, 이목 옮김 (2008). 국가와 희생개인의 희생 없는 국가와 사회는 존재하는가? 서울: 책과 함께.
- 베네딕트 앤더슨(2002). 상사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제1장, 제2장, 제9장.
- 박원길(2008). 원나라는 몽골의 지배사인가? 중화인민공화국사인가?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 제5판.
- 박원길(2007). 북방공정의 논리와 전개과정 연구. 고려대. 논문.
- 에릭 홉스봄(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 어빙 고프만 지음, 윤선길/정기현 옮김(1989). 스티그마-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한신대학교출판부. 제2장.
- 이천석(2009). 정체성의 정치-중국 북방공정과 몽골사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논문
- 정근식(2016). 전쟁 기억과 기념의 문화정치-남북한과 미국·중국의 전쟁기념관 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연구. P189.

중국문헌

馬晨(2012).論多民族國家的國家統合.中國科學社會主義學會當代世界社會主義專業委員會會及學術研討會.논문.

馮建勇(2012).近現代中國民族國家构建之歷程-民國中央政府統合邊疆民族地區的理論探討.社會科學.잡지.

鄭振宇.成吉思汗陵遷移始末及其有關問題.蘭州大學研究生學位論文.논문.

王紅川(2004).成吉思汗春祭大典祭祀儀式傳承現狀調查研究.中央美術學院.석사학위논문.

黃麗生(2011).蒙古意識與中國認同的糾葛：民初外蒙古獨立運動與內蒙古的反應. 蒙古專題研究書之一一四.

儲競爭(2014).英雄崇拜與國族建构：國際關懷下的成陵西遷及祭祀 2013年華中師範大學.青海民族研究.第25卷第一期2014年1月.주간.

朱宇華(2006).部落歷史視角下的成吉思汗陵保護.清華大學建築學院博士.박사논문.

馬冀(2008).成吉思汗陵文化價值論.內蒙古大學文學院.010021.前沿2008年第八期.잡지.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歷次五年計劃資料庫.党史頻道.人民網인민웹)

內蒙古文化產業發展的現狀及存在的問題.內蒙古自治區統計局. 2007年.

內蒙古自治區哲學社會科學規劃項目管理辦法.baidu웹사이트.

俄軍、姜濤(2013).博物館學概論.蘭州大學出版社.普通高等教育十一五國家級規劃教材.

陳蘊茜(2012.대만).紀念空間与社會記憶.2012年學術月刊南京大學.中華民國史研究中心.

王春良,李威(009).論蘇聯是怎么把中國的外蒙古分裂出去的.聊城大學學報2009年第五期.

張磊(2009).內蒙古旗縣博物館發展方向分析-以開魯縣，西烏珠穆沁旗博物館爲例.內蒙古大學. (석사논문).

郝玉峰(1989).烏蘭夫傳(우란후전).內蒙古人民出版社(내몽골인민출판부). P1-479.

曹禺(1979).王昭君(왕소군).四川人民出版社.(사천인민출판사).P3-147.

班固(반고).漢書(한서,고문헌).中華書局(중화서구).P920-950.P26-33.

范曄(범엽).後漢書-南匈奴列傳(후한서-남흉노열전).中華書局(중화서구).고문헌.

司馬光(사마광).資治通鑑(자치통감).中華書局(중화서구).고문헌.

영문문헌

Maurice Halbwachs(1992).On Collective Memory. P1-125.

Erving Goffman(1986).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Carolyn Marvin and David W. Ingle .Blood Sacrifice and the Nation: totem rituals and the American flag.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U JINGZHENG(2014). Hero worshio and the nation-building: westward moving of Genghis Khan's Mausoleum and Sacrificing Under the National Care.

Benedict Anderson(2006). Imagined Communities-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chapter 1,2,9.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1986).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 부록번역>

1. 왕소군과 관련 고문헌

1) 漢書 班固 元帝紀

竟寧元年春正月，匈奴呼韓邪單于來朝。詔曰：“匈奴郅支單于背叛禮義，既伏其辜，呼韓邪單于不忘恩德，鄉慕禮義，復修朝賀之禮，願保塞傳之無窮，邊陲長無兵革之事。其改元爲竟寧，賜單于待詔掖庭王檣爲關氏。”

한서-원제기 (반고)

기원전 33년 봄에 흉노 呼韓邪선우가 알현하러 한나라로 향했다. 바로 이 시기에 한원제가 그에게 왕소군을 보낼 것이라는 조서를 공포하였다: 흉노 郅支선우가 도의를 저버렸기에 지금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나 呼韓邪선우는 은덕을 잊지 않고 의례를 잘 지키고 있다. 따라서 다시 알현예물을 드림으로써 전쟁이 없도록 변방의 평화와 안전을 기약한다. 이 외에 액정(掖庭 지역 이름) 왕장을 상으로 내려 흉노의 왕후로 임명한다.

2) 漢書 班固 匈奴傳

元帝以後宮良家子王檣字昭君賜單于。單于歡喜，上書愿保塞上古以西至敦煌，傳之無窮，請罷邊備塞吏卒，以休天子人民。

한서-흉노전 (반고)

‘원제가 후궁에 있었던 양가의 딸 왕장을 선우에게 진상한다. 선우가 매우 즐거워서 변방에서 서북 둔황까지 그 일대의 전사를 저지하고 안정을 보장할 것을 승낙하였다.’

3) 後漢書 范曄 南匈奴列傳

生二子。及呼韓邪死，其前闕氏子代立，欲妻之，昭君上書求歸，成帝勒令從胡俗，遂復爲后單于闕氏焉。

후한서-남흉노열전 (범엽)

그녀는 아들 둘을 낳았다. 呼韓邪선우가 별세 하자 그 본처의 자식이자 다음 후계자가 될 장자가 선우의 자리를 이어 받았는데, 흉노의 혼인풍속에 따라 왕소군은 그와 부부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 왕소군이 한나라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귀국을 요청하였으나 한성제는 흉노의 습속을 따르라고 강제로 명령하였다.

4) 資治通鑒 司馬光 卷三十

復株累單于復妻王昭君，生二女，長女云爲須蔔居次，小女爲當于居次。

자치통감-사마광

왕소군이 復株累선우에 재가를 하여 딸 둘을 더 낳았다. 復株累선우와 11년동안 함께 생활하다가 기원전 15년에 죽음에 이르렀다.

2. 왕소군과 관련 시

王昭君 - 李白 이백-왕소군

漢家秦地月，流影照明妃. (한가진지월, 유영조명비)

一上玉關道，天涯去不歸. (일상옥관도, 천애거부귀)

漢月還從東海出，明妃西嫁無來日. (한월환종동해출, 명비서가무래일)

燕支長寒雪作花，峨眉憔悴沒胡沙. (연지장한설작화, 아미초취몰호사)

生乏黃金枉圖畫，死留青冢使人嗟. (생핍황금왕도화, 사유청총사인차)

杜甫-詠懷古跡 두보-영회고적

群山萬壑赴荊門，生長明妃尚有村。(군산만학부형문, 생장명비상유촌)
壹去紫臺連朔漠，獨留青冢向黃昏。(일거자대연삭막, 독류청총향황혼)
畫圖省識春風面，環珮空歸夜月魂。(화도성식춘풍면, 환패공귀월하혼)
千載琵琶作胡語，分明怨恨曲中論。(천재비파작호어, 분명원학곡중론)

白居易-王昭君 백거이-왕소군

滿面胡沙滿鬢風，眉銷殘黛臉銷紅。(만면호사만빈풍, 미쇄잔대협소홍)
愁苦辛勤憔悴盡，如今卻似畫圖中。(수고신근초취진, 여금각사화도중)
漢使卻回憑寄語，黃金何日贖蛾眉。(한사각회빙거어, 황금하일속아미)
君王若問妾顏色，莫道不如宮裏時。(군왕약문첩안색, 막도부여궁리시)

怨 詞 왕소군-원사

秋木萋萋，其叶萎黃，有鳥處山，集于苞桑。(추목처처, 기협위황, 유조처산, 집우포상)
養育毛羽，形容生光，既得行云，上游曲房。(양육모우, 형용생광, 기득행운, 상유곡방)
離宮絕曠，身體摧藏，志念沒沉，不得頡頏。(리궁절광, 신본취장, 질념몰침, 부득협항)
雖得委禽，心有徊惶，我獨伊何，來往變常。(수득위금, 심유회황, 아독이하, 래왕변상)
翩翩之燕，遠集西羌，高山峨峨，河水泱泱。(편편지연, 원집서강, 고산아아, 하수앙앙)
父兮母兮，進阻且長，嗚呼哀哉！憂心惻傷。(부혜모혜, 진조차장, 오호애재, 우심측상)

3. 2016年6月24 내몽골문화청 <내몽골자치구 디지털

틸박물관체제를 구축과 관련 연구보고>

“爲貫徹落實習近平總書記要讓博物館陳列的文物活起來的重要批示，本着貼近實際、貼近群眾、貼近生活的原則，把高科技信息技術運用到博物館展覽中，實施智慧服務、智慧管理、智慧保護……因此原則上同意內蒙古自治區智慧博物館體系建設項目”。

4. 遵擬成吉思汗靈柩遷移辦法(칭기즈칸릉 천이계획)- 기록보관소자료

- 1)地点(장소):遵照國防最高委員會決議，必要時遷移青海，但擬第一步暫移甘肅榆中縣興隆山，相機再行遷移,以免遠遷青西，且便移還原地。
- 2)路線(노선): 由伊金霍洛用蛇轎到榆林換汽車抵西安再轉榆中。
- 3)起靈致祭(제사):由中央令派沙王、圖王、傅主席、鄧軍團長、高軍長、榮總管、石參贊等爲起靈致祭官，以沙王爲主祭，其余陪祭。
- 4)護送(호송):由蒙藏委員會、軍事委員會及沙王各派一人爲護送專員并由中央制定一人爲主任，由天水行營酌派得力憲兵一連沿途護送。
- 5)沿途迎祭도상제사:由行政院軍委會通過沿途軍政當局迎送及致祭保護
- 6)安靈안장: 令該管省府籌備安靈處所。
- 7)護陵(릉의 보호): 由軍事委員會酌派駐防步隊一連以守衛。
- 8)通令(명령): 起靈時由沙王通令烏、伊兩盟各旗，明示移靈之意義，安靈后由中央通令蒙古各盟旗曉示抗戰結束後仍將成陵移回原地。
- 9)經費(비용):移靈經費由軍事委員會之戰務費內支出，原有守陵人員及誦經喇嘛之俸給及他關於靈柩之經常費用，由蒙藏委員會開列預算。

呈請行政院核發

5. 칭기즈칸릉 1차 천이 구호와 표어-내몽골자치구 기록보관소자료

1. 成吉思汗是民族的英雄！ (칭기즈칸은 민족영웅이다!)
2. 紀念成吉思汗要精誠團結！ (칭기즈칸 기념이 일치단결해야 한다!)
3. 紀念成吉思汗要推行兵役！ (칭기즈칸 기념이 병역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4. 紀念成吉思汗要服從最高！ (칭기즈칸 기념에 최고를 복종해야 한다!)
5. 紀念成吉思汗要伊除漢奸！ (칭기즈칸 기념에 한간을 제거해야 한다!)
6. 紀念成吉思汗要抗戰到底！ (칭기즈칸 기념이 항전을 지지해야 한다!)
7. 紀念成吉思汗要收復失地！ (칭기즈칸 기념이 실지를 수복해야 한다!)
8. 實行全民精神總動員！ (전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9. 打到日本帝國主義！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한다!)
10. 三民主義萬歲！ (삼민주의 만세!)
11. 中國國民黨萬歲！ (중국 국민당 만세!)
12. 中華民國萬歲！ (중화민국 만세!)

6. 덕왕의 칭릉천이 원서-기록보관소 자료

主席辦公室 (주석사무실에게) :

我會根據蒙綏地區的蒙族人民，特別是伊克昭盟自治區的人民，曾于一九五二年及一九五三年屢次要求移回成陵并在伊金霍洛修建成吉思汗陵。爲此擬于一九五四年農曆三月二十一日以前，由青海省塔爾寺遷回成陵。現在急待組織“成陵遷建委員會”，擬由王再天任主任委員，由奎壁、高錦明、李文精、李振華、鄂其爾呼雅克圖、金漢文、崔澤霖、朱言、嘎如布僧格、格拉僧等十人任委員。請提交行政會議決定

后，由政府名義公布，以便進行工作。

此致 敬禮

綏遠省人民政府民族事務委員會

一九五三年十二月十日

9. 국민당馬步芳 청룡천이 원서-기록보관소 자료

馬步芳就成吉思汗灵柩确定遷青啓抵時間電

蒙藏委員會委員長關勛鑒：目前戰事中心西移，成吉思汗灵柩亟應妥爲安置，業經本署決定遷青海塔爾寺，以策安全。并于未元自興隆山啓運，未咸運抵塔爾寺。除電青省府妥爲關照外，所有成陵辦事處經費自九月份起撥由青省府轉撥爲荷。馬步芳業四未寒 八月十四日

abstract

A Study on the Minority Nationalities' Consolidation and Political Reconstruction in Inner Mongolia

–focus on history museum and Mausoleum
of Genghis Khan–

Gu Fei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the end of 2016, 211 museums were established in Inner Mongolia. From this, Inner Mongolia was known as the most museum-established area among China's 5 ethnic minority autonomous regions. Furthermore, more than 70% of those are history museums. With the increase in visits to those museums, more than 90% of Inner Mongolia's museums were opened for free. So that museum industry was named after Inner Mongolia's Top Ten Project.

Mausoleum of Genghis Khan is the most typical spatial site and also a kind of special history museum. In more than 60 years from 1954 to then, Chinese government despite its huge investment on Mausoleum of Genghis Khan's repairs. Now Mausoleum of Genghis Khan is known as the most influential history museum in Inner Mongolia. Based on the current state, the study will be started center on history museum and Mausoleum of Genghis Khan in Inner Mongolia. The specific research purpose is, reveling the Chinese national system and political direction in Inner Mongolia by the analysis of history museums' distribution and feature. Besides, to inspect Mongolian people's psychic reaction and change.by analyzing of sacrificial ceremony and state of Mausoleum of Genghis Khan, aim at learning about actual consolidation effect and establish a basis of minority polities in future.

After the study we can draw 2 conclusions. One is that, in taking advantage of history museum and Mausoleum of Genghis Khan in Inner Mongolia to realize political consolidation, one side, on the process of receiving information in museums, most of peoples won't receive it entirely, and even fell discontent. On the other side, Mausoleum of Genghis Khan, as a hard media for Inner Mongolia consolidation with huge investment despite and excessive exploitation can carry many side effects. So by taking advantage of history museum and Mausoleum of Genghis Khan in Inner Mongolia to realize political consolidation will carry passive effects to some extent. The other one is, by seeing developing process of museum industry, in the late 1990s into the stage of rapid development. Especially from 2000 to 2010, the museum amount has been increasing at high speed. In order to developing museum industry, Chinese government actively

promoted it from all sides. Also, the politics about museum built from the late 90s can be classified as 3 stages: Jiang Zeming ruling period (1993–2003) was in museum industry's marketization stage. Hu Jintao ruling period (2003–2013) was the soft power focus stage. While Xi Jinping ruling period (1993–2003) was the museum invigoration period.

Key Words: Inner Mongolia, history museum, Mausoleum of Genghis Khan, minority nationalities' consolidation, consolidation effect, museum industry, Chinese government

Student Number: 2014-25122